(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0 1982년 2월 5일(금) 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ebruary 5 & 6, Friday & Saturday,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시민의 북한방문 막지 않으나 체류중 보호조처 없다"

외무성, 북한승인문제도 언급

캐나다정부는 공산권 국가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북한정부 승인을 고려하지 않겠으며, 정부여권이나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캐나다 관리의 북한여행은 금지하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시민들의 개인적 목적 북한여행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북한과 정부간 접촉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영사관등 외교관설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외무성은 밝혔다.

이와같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본지가 보낸질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외무성 북아시아및 태평양담당 휘틀톤(J. A. Whittleton) 국장이 마·맥기건 외무장관을 대리한 1월26일자 서한에서 확인됐다.

외무성은 또 캐나다 시민권자가 북한여행중 당면할지도 모를 곤경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영사 보호대책은 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캐나다정부는 북한관리의 입국은 거절하나 개인자격, 비정치적인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하기를원하는 북한사람의캐나다 입국은 허락된다고 밝혔다.

본지가 외무성에 보낸질문서에서 교민들의 북한방문및 북한기관의 캐나다내 활동실태에 관한 문의도포함했으나 거기에 대한 외무성의 답변은 없었다.

〈 휘틀톤 국장의 답변〉

맥기건 외무장관을 대리, 귀하가 지난12월8일자 서한에서 질문한 북한에대한 캐나다 외교정책을 밝힌다.

캐나다는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반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사회에서 강력지지해 왔다. 이런 이유로 북한을 승인하는 공산국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한 북한을 승인하지않을것이다.

캐나다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으며 캐나다와북한의 정부대 정부대화가있을수 없고, 영사관을 포함한 외교기관도 북한에 설치할수 없다.

이 정책은 캐나다와 북한간의 여행에도 적용된다.

캐나다정부가 발행한 공용, 또는 외교관용여권을소지한 캐나다 시민은 북한을 여행할수 없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개인적 용무로 개인 권을 소지,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여행자가 북한체류중 어려움을당했을 때 통상적인 영사 보호조처를 취할 수는 없다.

북한관리의 캐나다 입국도 물론 허락되지 않으나 북한인이 비정치적 목적으로 초청되었거나 정치적행동을 안하겠다고 약속하는 한 입국이 허용된다. 이런 원칙은 그동안 엄격히 적용되었고, 북한인의 캐나다 방문은 별로 없었다.

북한인의 캐나다 이민문제는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 다루어진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관의 북한방문이 불가능 하므로 북한주민의 캐나다 이민건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적다. 또한 북한인이 해외로 여행 이민을위해 캐나다 공관과 접촉한 경우도 극소수이다.

북아시아및
태평양 담당국장
J. A. 휘틀톤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 Ministère des Affaires extérieures
Canada

Ottawa, K1A 0G2
January 26, 1982

Mr. Lawrence Kim
The Publisher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Dear Mr. Kim,

The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the Honourable Mark MacGuigan, has asked that I reply to your letter of December 8, 1981, in which you enquire about various aspects of Canad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Canada, as you know, does not recognize North Korea. Rather, we have strongly supported the political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fora, and, reflecting this policy, have refused to consider recognition of the North until such time as one or more of its Communist allies should recognize the Republic of Korea on a quid pro quo basis.

From the above, it follows that Canada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re can be no general government-to-government contacts between Canada and North Korea. This policy precludes, of cours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offices, including consulates.

This policy has implications for travel between Canada and North Korea. Canadians carrying "official" or "diplomatic" passports issued by the Canadian Government may not travel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Canadian Government does not restrict Canadian citizens from travelling to North Korea in a private capacity on ordinary passports. However, Canada is unable to render normal consular assistance to any Canadian citizen who might encounter difficulties while in North Korea.

In conformity with our policy of non-recogn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cannot be granted entry to Canada. Private North Korean visitors are allowed to enter Canada if they have been invited for a specific non-political purpose and if they agree not to carry out any political activities in Canada. These principles are firmly applied and there have been very few North Korean visitors to Canada.

Private North Koreans wishing to immigrate to Canada are subject to Canadian immigration regulations. However, North Korean immigration to Canada is negligible as no Canadian immigration officials are permitted to visit North Korea. Few North Korean nationals are allowed to travel outside the country and thereby gain access to a Canadian government office abroad.

I trust the above will answer your concerns.

Yours sincerely,

J.A. Whittleton
Director
North Asia and Pacific Division

〈휘틀톤국장의 서한 〉

복합문화주의 강연

대학생 실학회 주최

토론토의 대학생 연구클럽 실학회(회장 김이철)는 첫 세미나로 5일 온타리오주교육회관(블루어·웨스트) 214호실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제1부(하오 7시~8시)는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우발레박사의「복합문화주의」강연이 있고, 이어 제2부로「한인사회 진로와 대학생의 역할」주제로 이상철, 유재신, 박인순, 김창열, 영상씨의 좌담이 있다.

실학회는 이씨조선 말엽, 정다산을 비롯한 실학파(実学派) 학자들이 선진국의 신학문을 들여와 실생활면에도 실용적 개혁을가져온데서 이름을 땄으며, 한국학과 서구학의 융화, 교류를 모색하는 대학생연구회이다.

◇동부 캐나다 최고 최대의 스키 명승지 세넹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한 스키강습대회 참석자들

세넹산누빈 스키어들의 낭만

31명참가, 초보자들도 씽씽달려

(세넹스키장=송광호 기자) 퀘벡시 근교 세넹스키장에서 열린 본사주최 스키강습회는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으며 1일새벽 5시반에 일행은 무사히 토론토로 돌아왔다. 세넹스키장은 퀘벡시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 동쪽 세넹산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캐나다에서는 최고, 최대의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 명승지. 약 2천 스키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호텔등 숙박시설도 수준급이다.

본사와 브랜돈 스포츠사가 공동주최한 2박3일의 스키강습회는 토론토 교민단체중에서는 처음 시도된 본격적 강습회였다. 그동안 수년간 본사가 YMCA와 공동주최했던 스키강습회는 1일 코스였다.

초보자 15명을 포함한 일행 31명은 29일 저녁6시관광버스편으로 토론토를 출발, 30일 새벽4시 현장 도착후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9시부터 스키장으로 향했다.

지난 주말의 토론토 근교는 눈으로 범벅이됐으나 세넹스키장은 날씨가 쾌청, 회원들은 마음껏 눈밭에서 뒹굴었다.

회원들의 스키실력에 따라 코스가 나누어졌다. 조외문, 박경애, 이종원씨등 준 프로급은 처음부터 험한 코스를 택해 나머지 회원들과 방향을 달리했다.

초보자 15명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은 세넹스키장측 지도원의 호령에 따라 발을 맞추어 스키요령을 익혔다.

김세정씨 부부와, 이억씨는 생전 처음 스키를 배웠다는데도 2일째인 31일에는 씽씽 날아, 다른 초보자들을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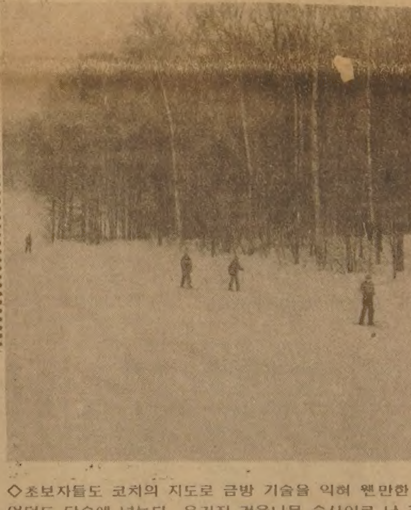
캐나다방문여행중 스키장에 동행했던 무용가 김용순씨의 오빠 김용구씨는 첫날부터 발목을 삐어 숙소에 홀로 쳐져야 했다.

하오4시30분 첫날의 스키강습을 끝낸 회원들은 퀘벡시로 나가 저녁을 먹으며 프랑스식의 퀘벡시를 관광했다.

저녁식사후 일부회원들은 디스코장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숙소에서 포커를 즐겼다.

2일째인 31일은 초보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 스키장을 종횡무진누볐다.

하오5시 스키장을 출발, 토론토를 향한 회원들은 피로의 기색도 없이 버스안에서 계속 노래등을 부르면서 여행을 즐겼다.



◇초보자들도 코치의 지도로 금방 기술을 익혀 웬만한 웬 언덕도 단숨에 넘는다. 우거진 겨울나무 숲사이로 난 길을 쌩쌩 달리는 기분은 스키어들만의 즐거움.

오늘의 예금금리 (1월25일 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60~89일	14.25%	12.75~13.5%
보통예금 DAILY INTEREST		12½%	12%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O 수리중 차 대여
O 완전한 차체수리
O 사고차량 Towing Service
O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솔리대리티 날」을 맞아 30일 토론토의 나단·필립스 광장에는 약1200명의 시민이 운집, 폴랜드의 계엄령 해제와 솔리대리티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캐나다 주요도시와 세계각처에서 궐기대회가 열려 폴랜드군정을 규탄했다.

「솔리대리티」지지궐기대회

노년회간부·교민 20여명도 참석

캐나다·미국등 통상금지등 촉구

"한국인은 「솔리대리티」를 지지한다.", "공산 주의는 평화의 적이다."

지난 30일 토론토 시청앞 나단·필립스 광장(Nathan Phillips Square)에 모인 군중들틈에 20여의 한인교포들이 위의 구호가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폴랜드사태의 조속한 해결을촉구했다.

세계각처 지원기구들이 정한「솔리대리티의날」을맞아 1200여시민이 모인이날 토론토대회에는 동양계로는유일하게 한국인이참가, 강신봉(한인연합회이사장) 조영호(노년회장), 조남유(실업인협회사무장)씨와전·현 노년회 간부들은 많은 백인들로부터"코리안 고맙다"(Thank Korean)는 찬사와 또한"남북한중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도받고 악수사태에 진땀을 빼기도했다.

하오2시시작 1시간 30분동안 계속된 이 시민 궐기대회는 폴랜드의 계엄령및 군정종식과 자유노조「솔리대리티」를 합법화, 감금된 노조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연사로는 폴·갓프리 (메트로 토론토시의회의장)얀·카스츄바 캐나다 폴랜드인연합회(Polish Canadian Congress)회장, 클리포드·필키 캐나다 노동조합(CLC)간부및지그문트·프르제타키비츠 토론토지부 솔리대리티 정보 서비스대표등과함께 아트·이글턴 토론토시장과 토마스·웰스 총무처장관도 눈에 띄었다.

갓프리의장은 군중들에게 캐나다정부는 전력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폴랜드노조를 도와야 한다며" 우리의 의사를 세계만방에 공개, 폴랜드인의 자유를위해 싸워야한다"고 역설 했다.

프레제타키비츠는" 캐나다는 현재 미국이 폴랜드에게 취하고있는 경제봉쇄에 협조, 계엄령이 해제될때까지 통상을 금지하라. 우리가 단결하여 폴랜드에게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수개월내에 현 폴랜드 군정은 끝장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호기금을 모금하러 서방세계를 순방중 토론토에왔던 폴랜드의 재지슬라브·파볼릭신부는 식량은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는 않된다며, 미국의 폴랜드에대한 비윤리적인 식량수출금지를철회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폴랜드교회일치운동위원회(Polish Ecumenical Council)사무총장인 파볼릭신부는"미국의 식량수출금지로 심각한 식량부족상태에있는 폴랜드는 2~3개월내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의 궐기대회는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얼, 에드먼턴등 캐나다 각처와서독의 100여개 시·읍을비롯, 시카고(미국), 비엔나(오스트리아), 런던(영국), 도쿄(일본)등 세계 도처에서펼쳐졌다.

외환은행 자산 $3400만으로

교민예금액만 $520 만

캐나다외환은행 대차대조표

1982년 1월30일현재
(단위 : 천달러)

자산		부채	
예치금(은행)	8,000	차입금(은행)	19,000
Bank loan	20,000	예수금	9,040
대출금	5,230	자본금	5,000
고정자산	400		
기 타	370	기 타	360
합 계	34,000	합 계	34,000

캐나다 외환은행은 1 월말 1/4분기 결산보고를 통해 교민예금 약$520만을 포함, 자산규모가 $3,400만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30일 베타한인 와이즈맨즈클럽초대연설에서 최승락 외환은행장은"오는 4월의 블루어지점 개설에이어 83년에는 몬트리얼, 84년에는 에드몬톤, 캘가리등지에도 지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1.4분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 500 만달러로 시작한 이은행은 교민예금 $520만 포함, 예수금$904만, 차입금 $1,900만등의 은행부채를 활용, 교민대출금을 비롯한 대출 $523만, 은행대출금 $2,000만의 자산실적을 갖게됐다.

자본금이 $500만이므로 자산은 캐나다은행법에 의해$1억까지 제한됐으나 외환은행은 첫해 목표를 평균자산 $3천만으로 잡고 있어 금년 9월말 자산규모 $5,6천만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있다.

최행장은 이날 베타클럽 연설에서"교민대출금은 $2~3만 규모가 대종을 이루고있다. 외환은행은 기존 은행과 실적등 서류보다는 사업전망, 은행가로서 모든 개개인의 인품등을 고려, 담보가 부족해도 신용대출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교민속에 성장하는 은행으로서 3만 교민들의 성원을 부탁한 최행장은"3년내에 자본금을 $1,000 만으로증자, 자산규모 $1억 은행으로 성장시켜 교민사회 커뮤니티뱅크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LA올림픽 조사단

서울올림픽위 파견

(서울3일=연합)서울올림픽구성위원회는 3일 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빈틈없는「종합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주초 84년 올림픽 개최지인 로스엔젤레스에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발표했다.

조사팀으로가는 7명은올림픽구성위원회, 서울시청 및 올림픽후원위원회 간부들로 구성된다.

재계약문제등 결의

벡커협, 총회및 신년파티

벡커협회(회장 김병진)는 지난 29일 프린스 호텔(900 York Mills Rd.)에서 신년파티겸 임시총회를 갖고 벡커본사와 재계약시딜러가 협회에 권한 위임을 한것과 담배전시에서 나오는 코미션 배당에 대해 딜러에 유리한 조건으로 본사와 타협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하오6시 칵테일로 시작된 파티는 이태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디너후 회장인사와 임원및 이사소개가 있은 다음, 안건토의에 들어가 현재 협회가 당면한 2가지 문제를 집중토의했다.

그 하나로 3월부터 본사와 딜러간에 재계약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본사는 계약조건을 임의로 미리 작성, 각 딜러를 본사로 불러 싸인을 받아왔다. 본사의 이런 계약방법은계약시 딜러의 위축된 감정으로 계약조건을 자세히읽어볼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 본사에 유리하게 계약체결을 해왔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딜러들은 재계약시 모든 딜러의 권한을 협회에 위임, 협회가 본사와 직접 딜러의 최대한 권익을위해 계약할 것을 가결했다.

또하나는 작년초부터 벤슨 엔 헷지(Benson & Hedg) 담배회사는 각딜러가게에 담배를 전시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7를 본사에 코미션으로 주어왔다. 본사는 그중 1/3인 $9를 딜러에게 지급했다.

이의 부당성을 들고나온 협회는 각딜러에 코미션의 2/3를 줄것을 본사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에 한조처로 각딜러들은 본사가승복할 때까지 문제의 담배전시를 중지하기로 결의,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임시총회가 끝난 후 파티는 경품추첨및 춤으로 1시까지 흥겹게 진행되었다.

이날 협회회원 217명(한인 87명, 캐네디언 130명)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 30명은 캐네디언이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어떤형태 차별도 제거

UN총회,「종교의 자유」선언문 채택

예배·의식·생활관계·설교자유등 규정

유엔총회는 최근 기초하는데만 20년이걸린 종교자유에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유엔이 채택한선언문은 어떤 특정국가의 종교를 이유로한 박해나 차별을 시정하는 효과를 나타내는것은 아니지만 어떤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서명국가들이 이에관한 국제조약을맺거나 최종적인 헌장을 채택할수있는 길을 열어놓는 효과를 갖게된다.

선언문 채택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현장채택에 그리 오랜세월이 걸리지는 않을것으로 낙관하고있는데「종교나 믿음을 이유로하는어떤 형태의 차별도 재거돼야 한다.」는 제목이 붙은 이 선언문은 당초「종교라는 표현만을 쓰려 했으나」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는 공산국가의 요청에따라「믿음」이라는단어도 집어넣었다.

또 어떠한 경우도 개종은 용인하지 않는 회교국가들의 고집에따라 종교를 가질 권리에 상대되는「개종의 권리」도 삭제됐다.

타이프지 2페이지의 분량에 8개항으로된 이 선언서는「모든사람은 사고와 종교,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에는 본인의 선택에따라 특정종교 또는 믿음을가질 자유가 포함된다. 인간은또 개인혹은 단체로 자신의 종교나 믿음을 증거하기위해 예배를 보거나 의식을 행하고 일상생활의 관례를 지키며 설교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언문은 이어「누구도스스로 선택한 믿음이나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어떠한형태의 위협도 받지 않으며 믿음이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되며 모든국가는 이같은 차별을 제거하고 자유를보장하기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언문의 또다른 조항은 부모는 자신의 믿음이나종교를 자식에게 물려줄수도 있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되며 사고와양심의자유에 입각, 의식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기위해적절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발적인 헌금을 권유할수있으며 자선기관이나 인도적인 단체를 설립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 이에따라모든 사람은 사람을 훈련 시키고 지도자를 임명하며휴일과 기념일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한편 종교와 믿음에관한 문제로 다른사람과 접촉할수 있다 고밝히고 이같은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수 있도록하기위해 각국은 적절한 입법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언문의 실질적인 기초작업은 1962년 유엔총회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산하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모든형태의 종교적 불관용 철폐선언문을 기초하도록 요청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모범부부 적성진단

퀴즈로 알아보는"백년해로"

당신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가? 돈, 섹스, 자녀 및 어디에 살고, 핵무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가 라는 따위의 문제는 잊어버려라.

어느 커플도 이러한 큰 문제에 대해선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커플을 잇는 솔기를 뜯어버리는 것은 일상생활의 하찮고 사소한 일들이다.

당신은 피자위에 무엇을 첨가하는 것이 좋은가? 자동차래디오는 켜져야 하는가? 꺼져야 하는가? 당신은 치약을 쓰고 뚜껑을 꼭 닫는가?

아래 퀴즈는「당신은 사이좋게 지냅니까?」(Are You Compatible?)라는새로나온 책자에서 일부를발췌한 것이다.

이것을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사람(Very Important People)과 같이 풀어보라.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에게적합한지를 살펴보라.

당신이 먼저 퀴즈를 풀고, 다음에 당신의 VIP 에게 풀게 하라. 엿보는것은 금물, 점수는 마지막에.

◇설 문

1 : 내가 좋아하는 "피자토핑"은,
a. 버섯(mushrooms)
b. 페퍼로니(pepperoni)
c. 엔초비스(anchovies)
d. 밋볼스(meatballs)
e. 소세지(sausage)
f. 이상의 복합
g. 그밖의 것

2 : a. 나는 침대 홑이불 끝을 요에 접어넣고 자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잠잘때 침대 홑이불 끝을 요밖으로 잡아 당겨 빼낸다.

3 :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나는 보통
a. 사실대로 말한다.
b. 거짓으로 대답한다.
c. 대답을 회피한다.

4 : 만약 내가 둘만의 휴가여행으로 가능한 다음 세곳의 목적지중의 하나를뽑는다면
a. 파리(Paris)
b. 호놀루루(Honolulu)
c. 시드니, 오스트렐리아 (Sydney, Australia)

5 : a. 나는 선생이 아이들을 절대 때리면 안된다고 믿는다.
b. 나는 때릴만한 이유가 있으면 선생이 아이들을때릴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6 : 화장실 두루마리(toilet paper roll)를 바르게 거는 방법은?
a. 휴지가 밑에서 나오는 것이다.
b. 위에서 나와야 한다.

7 : 탁 트인 하이웨이에서 차를 몰때 나는 보통
a. 제한속도 밑으로달린다.
b. 제한속도와 같이달린다.
c. 제한속도를 초과한다.

8 : 나는 파티에 가는 것은 좋아하나
a. 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b. 나는 파티여는 것은 좋아하나, 가는 것은 싫어한다.
c. 나는 파티에 가는 것과 여는 것 모두 좋아한다.
d. 나는 파티 자체를 싫어한다.

9 : 워터게이트사전 이후전미대통령 리챠드·닉슨은
a.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b. 운명이 더 비참했어야 했다.
c. 투옥됐어야 했다.

10 : a. 나는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b. 나는 자극성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 a. 나는 보통 옷서랍이나 옷장문이 항상 닫혀있나 확인한다.
b. 나는 옷서랍이나 옷장만을 조금 열어놓는 타입이다.

12 : a. 나는 가족, 친구및내가 방문하는 곳의 사진찍기를 좋아한다.
b. 나는 사람이나 장소 그 자체에 더 관심이 있다. 사진촬영은 지루하다.

13 : 집에서 1마일(1.6km) 안에 떨어진 곳에 신문이나 빵을 사러 갈 때, 나는 주로
a 자동차를 타고 간다.
b. 자전거를 이용한다.
c. 걸어간다.
d. 대신 갈 사람을 찾는다.

14 : a. 나는 저녁식사후 자주 간식(snack)을 먹는다.
b. 저녁식사후, 나는 아침식사(breakfast)때까지 아무것도 안먹는다.

15 : 나는 보울링(bowling)보다는 춤을 추겠다.
b. 나는 춤보다는 보울링을 하겠다.
c. 나는 두가지 모두 관심없다.

16 : a. 나는 일어나는 즉시 아침식사 하기를 좋아한다.
b. 나는 일어나서 무엇을 먹기 전에 한동안 정신을 차려야 한다.
c. 나는 아침식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7 : 외국영화를 볼 때나는
a. 자막(written Subtitles)이 있는 것이 좋다.
b. 자국어로 녹음(dubbed Voices)된 것이 좋다.

18 : 나는 잠안자고 자정이 후까지 있는일이
a. 자주있다.
b. 가끔있다.
c. 거의 없다.

19 : a. 건강한 사람이 원격조정 TV셋이나 자동으로 차고문을 여는 장치를 사용하는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b. 말도 않되는 소리, 그러한것은 현대생활의 일부분이다.

20 : a. 나는 물건값 깎기를 좋아한다.
b. 나는 물건값 흥정으로 옥신각신하길 싫어한다.

21 : a. 모든 살인범들은사형당해야 한다.
b. 몇몇특별한 상황 아래서만 사형이 합리화 될수 있다.
c. 사형제도는 근절 되어야 한다.

22 : a. 나는 발레공연에가는것을 좋아한다.
b. 발레? 잠자는곳에 앉을수 있다면 간다.

23 : a. 누구나 살찌는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표준체중을 가진사람을 좋아한다.
b. 나는 표준체중보다 10~20파운드 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24 : a. 나는 때때로 화려히 정장하는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25 : a. 나는 토마토를「토메이토」로 발음한다.
b. 나는 토마토를「토마토」로 발음한다.

◇점수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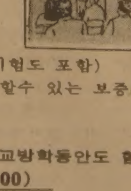
서로가 답을 비교해보고 양쪽이 모두 같은 응답을 했을때마다 4점씩 더해라. 최고점수는 100점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느누구도 100점을 얻지는 못하리라.

점수분포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

90이상 : 이상적인 커플
70~90 : 몇가지 협상만 한다면, 당신은 무리없는 커플이 될것이다.
50~66 : 당신은 젊거나, 특별히 융통성있는 성격의소유자라면 아마 같이 지낼수 있을 것이다.
50이하 : 미안! 당신들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기 어렵다.

한편, 예외는 있는법. 잘 거울려 살것갈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가있다. 혹 시 주위에 그런 커플들이 있는지 살펴봄도 좋을것이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스페셜·세일
● 조 기 1BOX(33LB.) $42.95
● 가도야참기름 CAN $ 8.95
● 기쯔네우동 BOX $19.50
~~ 배달 합니다. ~~
동 양 식 품
1662 Jane St. 248—5131

바둑대회안내
본기원 주최 최고위전 도전자 결정 바둑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이고자 하오니 다수 참가하여주시기 바람니다.
대국일시 : : 2월13일부터 동28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참가자자격 : 본기원회원에 한함
대국방식 : FULL LEAGUE전
참 가 비 : $20
시 상 : 1, 2, 3등 TROPHY증정 ·
기 타 : 대국종료일까지 대국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현재 CHAMPION : 이 세 주 (4단)
1982년 2월1일
한 국 기 원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실협회원 상점주소록」 발간

본협회 집행부는 방대한 조직의 유기적인연관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편리를 꾀하기 위해 회원주소록을 발간하기로 결정, 제작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작업으로서 이일의 담당임원들은 각회원들의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수시로 변동되는 회원들의 동태가 즉시 협회로 보고되어야 하며, 변경된 스토어 이름, 주인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등 그간 정리되지 않은 사항들이 우선 파악되어야 발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소록 발간을 계기로 이같은 미비사항들이 일소되고 정리될 때 발간작업은 약 2개월후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확한 기재를 원하는회원과 그간 스토어 매매관계로 변경이 있는 회원은 2월말까지 협회로 자진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광고를 원하는 이들도 협회사무실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 한다.

조심! 교묘한 가짜세일스맨

최근 일부회원 스토어를 돌며 카드섹션(Cards Section)의 랙을 정리해 주는등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하는 젊은 캐나다안 세일스맨이 있어 경종을울려주고 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금) 회원 박모씨(200-41번)의 전화로 알려졌는데, 이자는 가끔 나타나서 카드를 정리해 주는 듯하다가 봉투가 빠진 카드를 주고 돈을 챙긴 후 사라진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한 자기 친지의 가게(Woodbine지역)에서는 X-Mas씨즌 카드를 갖고 와서 후에 팔지 못한 Card를 회수해 간다고 하며, 물건을 두고간 후, 1주일 후에 다시 와서 대금지불을 독촉하여 돈을 받아간 후 씨즌이 지나도 오지않아 재촉을 하고자 연락을 했더니 전화번호가 가짜였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박씨등 회원들에 의하면 그자가 준 인보이스의 회사도 유령회사로서 W. Benach Greeting Cards였고, 전화번호 420-7097, 861-1137도전부 가짜였다고.

회원들은 이같은 파잉친절이나 정상적인 조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세일스맨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협회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계몽해 줄것을 요청하고있다.

한인실업인협회 회원여론조사 질문서

본 질문서는 회원 여러분의 여론을 수합하여 본협회의 사업에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문서에 표를 하시어 협회사무실로 우송하여 주시면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협회진로에 공헌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1982년 2월 1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장 **차 선 겸**

질　문(해당되는 난에 ×표를 해주십시오)

1. 협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딜의 상품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읍니까?
   밀　크 ( )　빵 ( )
   아이스크림 ( )　잡　지 ( )
   담　배 ( )
2. 「실협뉴스」가 실린 신문을 보십니까?
   꼭 본다 ( )　이따금 본다( )
   안 본다 ( )
3. 「실협뉴스」를 어떤 면에서 활용하면 좋겠읍니까?
   뉴스기사 ( )　회원투고 ( )
   해설및논설( )　경제정보 ( )
   연 재 물 ( )
4.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협회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한다 ( )　반대한다 ( )
   잘모르겠다 ( )
5.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귀하는 적극 참여하시겠 읍니까?
   출자금을 출자하여서(( )
   공동구매활동사업에만 ( )
   정신적으로만 협조한다 ( )
   아직은 생각해본 일이 없다 ( )
6. 회원의 가입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타종류의 사업도 권유해서 가입시켜야한다 ( )
   차별해서 연관이되는 스토어만 가입시켜야한다( )
7. 협회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50은 너무많다( ) 연 $50은 적당하다( )
   연 $50은 적으니 좀더 인상해도 된다 ( )
8. 귀하는 스토어의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구입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도매상에 간다. ( )
   도매상에 주문하여 딜리버리 받는다. ( )
   위의 두가지를 병용하고 있다. ( )
9. 귀하는 한주에 물품구입비를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1,000~이 하 ( )　$1,000~$2,000 ( )
   $2,000~$3,000 ( )　$3,000~$4,000 ( )
   $4,000~$5,000 ( )　$5,000~$6,000 ( )
   $6,000~$10,000 ( )　$10,000~이 상 ( )
10. 귀하는 협회에 적립기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 ( )　없 다 ( )

<문예작품공모 입선> (3등)

자 화 상

신 승 숙

해가지면서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고, 어두움이밀려오면 자신에 대하여 골똘하게 생각하는때가 있다.

적나라한나란 과연 어떤것일까?

나의 자화상은 어떠한모습일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조차 없다면, 나는 더욱 보잘것없는 미물에 가깝고, 인간된 보람조차 갖지 못하는 것같다.

나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적당히 비판할줄도 모르고, 구름에 물려 헛된 천지에 방황하기 몇해던가!

나를위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전에 남의탄식을 구경하며, 웃으며 살던내가 아닌가!

이렇게 무감각한 생활속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보내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좀더 나은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물질의 노예가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활이란, 재미있는 면도 많지만 어렵고 치사한면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좀더 좋은 잠자리, 좀더 나은 먹이를찾아 먹고자는 일에만 집착하여 동물적 욕구의 충족에 급급한것이 나의 자화상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인간능력의 평가조차도 얼마나 잘사느냐, 얼마나 좋은집을 가졌느냐 하는 일차적인 선에 기준을 둘때는 없는가 생각할때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면 어떻게해야 부끄러움이 없는삶을 영위할수 있을까?

우선 마음에 평화를 잃지않고, 비젼을 가지며, 선하고 근면한 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한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말들은 자신의 운명을 굴레씌우기 쉽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일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수 있을때 아름다운자화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것이라 믿어진다.

사랑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며, 인생을 환희롭고 풍요롭게 가꾸는 생명수이니까.

인생을 훨씬먼저 사신분들 에게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자신을 되비추어 보는때가 있다. 사려깊은 사고와 진중한 행동, 진지하게 삶에 임하는 태도는 오래오래잊을수가 없다.

인간이 그 어떠한 형태의 삶을살건 근본적으로지향하는바는 참됨과, 선함과 가치있는 삶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한정된 생명과 능력의 소유자 이므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이 인생을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온자취는 항시 미흡하고 잘못된일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발견하여 아픈 회환에 잠길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가게문을아침에 일찍 열면서, 신문한장이라도사는 손님에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지않고, 마음 진심으로 빌어준다.

또한 손님은 후조와 같아서 값이 싼곳으로, 기분이 나는대로 신선하고 깨끗한 곳으로 이가게에서저가게로 발길을 돌린다.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나 손님을 왕 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를 섬기는 신하로서 충성하고 반기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러나 비굴하지 않도록친절히 한다.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계절, 지금처럼 열심히 살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마음에 그림을 항상 아름답게 그리며, 또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것이다.

꿈과 이상은 크고 원대할수록 좋지만 달성하지못한다큰 꿈보다는 성취시키는 작은꿈이 더욱 알찬 것이리라.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것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나의 자화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이다.

나는 초라한 자화상을갖지 않기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편리한 아파트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마련했다.

다행히 집앞에는 작은공원이 있어서 아이들 정서면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풍성한 혜택을받은 대자연 속에서 드높은 이상을 키우며 맘껏 커가거라. 또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질적인 사회풍토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신앙과 정신적 자신감 속에서 감정을 순화시키며 하늘의별들처럼 개성있게 자라기를 들의 꽃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려고한다.

욕심 부리지 않는삶, 평범한 행복속에서 마음의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돈만 드는 기계로 전락하기 전에 생활고에 찌든 구긴 얼굴을 펴고, 가슴에 서리는 애달픔과 외로움도 쫓아내려고 노력한다.

넓은 푸른 평원위에 영원을 마음으로 창조하고, 건전한 이상을 작은 가슴에 뜨거이 담아 보다나은 내일을 이룰수있는 준비의시기를 갖도록한다.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줄 알며, 조화와 예술을 즐길수있는 생활을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귀한 삶일까!

잠시 피곤한 현실을떠나 나의취미생활도 살리면서 자화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주어진나의삶을 풍요하게 가꾸는 바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533 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 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 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Hammond and Company
Accounting, Tax and Management

JOSEPH HAMMOND
TEL. 496-0366
37 HAWLEAF CRESC.
WILLOWDALE, O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셉 하몬드입니다. 저는 19년간의 어카운팅업 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의 어카운팅, 또는 북키핑 써비스로 봉사하기를 열망합니다. 신속 정확하고, 특히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에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학 력 American University Lebanon Diploma, B.A. 자격 R.I.A.자격 Certificate for proficieney in Economics from London chamber of commerce.
경 력 19년 Worked with large firms or chartered accountants Arthur & Anderson (4년) Dunwiidy co (2년) Owner of Hammond & company, AccountNG and Tax firm (7년)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거 1982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 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2월12일(금요일) 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 회의실
20 Mobile Drive, Toronto,
안　건 : 1) 추경 예산안 심의
2) 분과위원회 조직구성
3) 부 이사장및 임원 인준
4) 기타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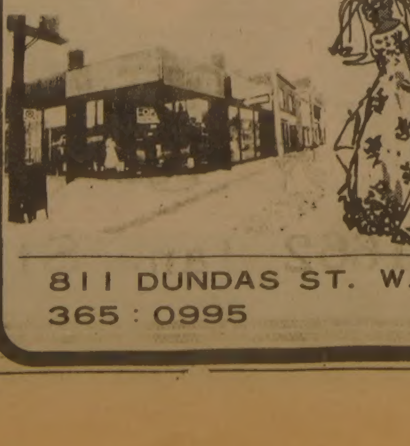
1982년 1월25일

온타리오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랜지
● 결혼케익등



811 DUNDAS ST. W.
365 : 0995

합동신년 친목파티

토론토 대학학생회(KUTSA) 한인컴퓨터회(COSKA),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년 친목파티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2월13일(토) 오후7시
장　소 : TARTU CAFETERIA
310 BLOOR ST. W.
(연합교회옆 빌딩)
회　비 : 멤버학생및 각회학생회원 $5
멤버가 아닌학생 $7
성인회원—카플당 $22
싱　글 $12
※ 회비는 부페스타일 식사포함, 캐쉬바, 엔터테이먼트—DJ. LIVE MANY MORE

토론토대학학생회 회장 천명호
한인컴퓨터회 회장 이태영
재미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 지부장 신복균

서울·平壤道路개통 自由통행 保障하자

各界人士 상호訪問 日用品交易

仁川·鎭南浦港 우선적으로 開放
雪嶽山·金剛山 자유觀光地 설정

孫統一院, 20개示範事業 對北제의

정부는 1일 南北韓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조치로써 서울―平壤간에 도로를연결, 개통하고 雪嶽山 이북과 金剛山이남지역을 관광과 휴양지로 활용하기위해 自由觀光공동지역으로 設定하며 仁川과 鎭南浦港을우선적으로 상호개방하는등 20개項示範事業의 실천을 北韓측에 제의했다。

◇20개항 示範사업
1. 南北도로 연결개통
2. 離散가족 書信·상봉
3. 觀光지역상호 개방
4. 海外동포 공동招請
5. 交易港을 示範개방
6. 상호放送 자유청취
7. 選手團 板門店통과
8. 外國人 板門店왕래
9. 자유漁撈구역 설정
10. 各界人士 상호訪問
11. 쌍방記者 取材보장
12. 民族史등 공동연구
13. 國際경기 單一파견
14. 日用品의 交易실시
15. 自然자원 공동개발
16. 技術者교류·商品展
17. DMZ서 공동競技
18. DMZ生態系 조사
19. DMZ軍시설 철거
20. 軍책임자 電話가설

◇孫在植통일원장관

孫在植 국토통일원장관은 이날 상오9시30분 南北대화사무국에서 對北聲明을 발표,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 北韓당국은 하루속히 동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제의하고 全斗煥 대통령이 밝힌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을위해 이들 20개示範사업을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것을 北韓측에 요구했다。

孫장관은 이날 對北성명을 통해 ▲해외동포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 板門店을 통하여 南北을 자유로이왕래하도록하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참가 北韓선수단의 板門店통과를 가능케하며 ▲板門店을 통한 외국인의 자유로운왕래를 실현하고 ▲모국방송수지와 상대방 正規방송의청취를 허용하며 ▲離散가족간의 우편교류와 相逢을실현시키는등 南北韓쌍방의 사회개방을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그는 또 南北韓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위해 ▲자유로운 공동漁撈구역의 설정 ▲南北韓간의 정치인, 경제인등 各界인사간의 친선 교환방문 ▲쌍방기자들의 상대방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보장 ▲民族史의 공동연구 추진 ▲南北간 종목별 친선 체육경기와 각종 국제경기에 單一팀을 구성, 파견 ▲日用생산품의 交易 ▲자연資源의 공동개발과 이용 ▲기술자 교류 및 상품전시회 교환개최를 제의했다。

孫장관은 이어 南北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非무장지대내에 경기장을 마련, 친선경기에 이용하며 ▲비무장지대의 자연生態系의 공동조사 ▲비무장지대내 軍事시설 완전철거 ▲雙方간 軍備통제조치의 협의와 군사책임자간 直通전화설치를 제시했다。

孫장관은 對北성명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은 北韓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때문에 北韓측이 여기에 호응하지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分斷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南北간의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高淑鍾피고인 無罪선고

서울地法 "檢察「嚴問」흔적…自白 증거못돼"

尹甲富사건

서울 龍山區 元曉路 尹景花씨(72)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金德武부장판사·배석 金炳宰·李亨夏판사)는 1일 상오10시 高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일한 직접증거로 논란의 대상이됐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을 인정하지만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高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될때 이사건수사 경찰관들이 동승했고 ▲검찰에 송치돼 구치소에 수감됐을당시 경찰에서 「嚴問」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수감 이틀뒤부터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을 두려워하더란 사실들로 미루어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후에도 경찰에서의 嚴問을 당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검찰에서 임의성없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일단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을 인정한 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돼있어 사리에 반하는 점, 허구적인 사실이 포함돼있는점, 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점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때문에 이를 유죄의증거로 할수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사건발생 1백94일, 高피고인이 구속된지 1백68일, 기소된지 1백43일만에 난것이다. 지난 1월21일 8회공판에서 검찰은 高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사건을 수사함에있어 수사기관(경찰)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다고밝혀 이례적으로 적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한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사실을 기재하고 있는것이아니라 범행현장의 상황에맞추어 추리한 허구사실을 기재한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검찰이 제시한 각가지증거에대한 배척이유를 밝힌뒤 피고인의 ▲범행순서와 ▲현장상황및 ▲범행현장에 갔다가 집으로돌아왔다는 경로에관한 진술등도 객관적으로 현장상황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없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피고인이 남편 尹永培씨에게 尹景花씨의 소식이없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81년8월6일까지 경찰에신고하는것을 지연시켰고 ▲범행다음날인 81년 7월23일 하오6시께 피고인의집 안방미닫이문 벽위에 10년간 걸어둔 尹景花씨의 사진액자를 떼어냈으며 ▲사건당일(81년7월22일) 전후의 피고인행적에 대한 알리바이가 허위로판명됐다는 몇가지 정황증거는 이정황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10年이상 求刑사건 無罪確定돼야 석방
保釋되는길은 있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高淑鍾피고인(46)은 검찰이 10년이상의 징역형(사형)을 구형했기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기전에는 석방되지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백31조(無罪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면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가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과정에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등으로 풀려날수 있는길은 있다. 그러나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않는것이 통례로 돼있다。

高피고인 保釋신청

이날 선고직후 변호인측은 담당재판부인 합의14부에 高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냈다. 보석허가여부는 기록을 1심재판부가 가지고있을때까지는(항소장 접수후 14일까지) 항소심이 아닌 1심재판부인 합의14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울음터뜨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순간 高피고인은 앞으로 엎드린채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한사람의 누명이 벗겨지고 「증거제일주의」라는 엄숙한 교훈이 돋보인 순간이기도 했다。

全大統領에 레이건親書

"統一方案제의 合理·未來指向的…全幅지지"

全斗煥 대통령은 1일 로널드·레이건美 대통령으로부터 지난1월22일 제시된 民主통일방안은 포괄적이며 合理的이고 未來指向的인 제안으로 이를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親書를 받았다。

駐韓美대사관의 리처드·워커대사와 클리브랜드 副대사가 이날하오 靑瓦臺를 방문, 全대통령에게 전달한 이 親書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안이 韓半島의 평화와 和解, 東北亞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北韓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親書全文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각하께서 지난1월22일 발표하신 韓半島통일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제안을 본인에게 알려주신데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은 포괄적이며 合理的이고 미래 指向的인 제안들입니다。 이제안은 한국민의 깊은 熱望을 나타낸것이며 韓半島의 통일은 한국인들 자신에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각하께서 작년에 北韓의 金日成主席을 만나자고 제의했을때처럼 우리는 이번의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의 제안이 韓半島의 평화와 和解, 그리고 東北亞의 안정을위해서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이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北韓의 반응이 好意的이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各黨서 論評 "北韓거부理由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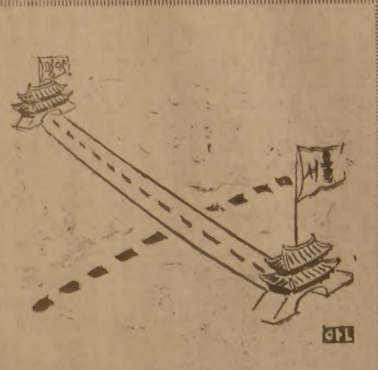
▲民正黨李鍾燦대변인=20개항목의 구체적인 對北제의는 우리민족끼리 당장 실천에 옮길수있고 민족의 一體感을 더욱 강화하는 後續조치로서 북한당국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데 더 이상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수없다。 이렇게 南北韓쌍방에 상호이익을 가져올수있는 실현가능한방안을 거부한다면 北韓은 국제사회의 비난과고립을 면치못할것이다。

▲民韓黨 金搢培대변인=우리는 성의와 인내로써 全대통령이 제시한 민주통일방안의 정신에입각하여 통일원장관이밝힌 20개항의 시범사업가운데 단몇개라도 당장 北韓당국이 호응할것을 촉구한다。

▲民社黨 康伯大변인=이번 시범사업제의는 全대통령이 밝힌 민주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가장 순리적이며 합리적인代案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것은 6천만 南北韓동포의 염원이자 통일을 주시하는 국제사회에 가장현실적인 방안임을 거듭 강조한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이번제의는 南北韓간에얽힌 문제 가운데 實現가능성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현실적인 代案으로 평가된다。 北韓측은 차제에 통일문제를 민족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이번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민족적 염원에 부응해줄것을 촉구한다。

社會漫評



開通제의

地平線

한국사람은 평생에 평균 7천5백만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온적이 있었다.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8년기준으로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재작년, 그러니까 80년에 저축추진중앙회가 서강대학연구팀에 의뢰해서 만들어낸 숫자다. 같은 저축추진중앙회의 숫자는 다음해, 그러니까 81년에 나온것을 보면 도시근로자들은 평균 1억4천8백여만원을 번다고 한다. ▼1억4천8백여만원이라면 엄청 큰돈같기도 하나 오늘의 도시인이란 늘 돈에 쫓기는 인생이라고도 할수있다. 80년에 나온 보고서는 표준적도시인의 일생을 신혼부부가 단칸 셋방에서 출발하는 경우를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40대초까지 내집을 장만하고 40대부터 50대에걸쳐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야 된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한평생중 수입이 많은게 40대에서 50대초반이지만 이때는 또한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허리가 휘는 때이기도 하다. 78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이 하나를 대학졸업까지 대자면 9백8만원이 든다고했다. 그러저러 인생의 짐을 벗는다 싶을때가되면 덜컥 55세 정년이 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축하라는 권고였다. ▼알뜰살뜰 푼돈을 아껴써야되는 도시인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퇴직금밖에 없다. 부자 나라들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돼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 그퇴직금도 아직은 마지못해 주는 「최저수준」에 그치고있다. 지난 10월에 나온 한 조사보고에의하면 16명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체의 93%이상이 법으로 규정된 최저선을 주고있다. ▼평생을바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만큼 대접해주는 소위「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17%도 안되는 형편이다. 일본은 10년이상 한직장을 지킬때엔 누진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최저선의 퇴직금」이야말로 도시의 월급장이들에겐 「최저선의 생명선」과도 같은 돈이라고 해야된다. 적어도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그렇다. ▼퇴직금 2천8백79만원을 몽땅 소매치기 당한 사건이 30일 서울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은행의 정기적금에 넣으려고 투자금융에서 찾은 돈이었다한다. 생활이 어렵다면 생명선이 끊긴 것이고, 여유가있다해도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의 가슴 아픈 심정을 동정하는 것은 퇴직금을 생명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월급장이들의 공통된 마음일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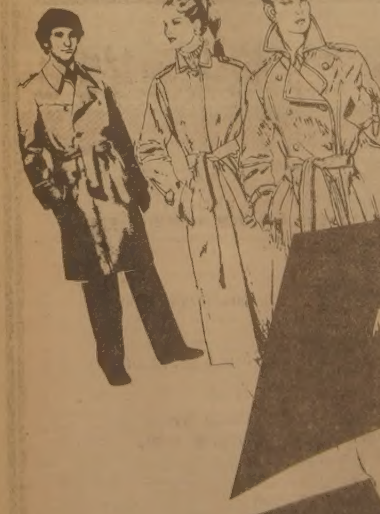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조마요리및 한식전문
74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B) 922-3111
R) 791-8196


뉴팻션 다량 입하!!
50% OFF
기간 : 2월11일(목)~20일(토)
시간 : 오전10시~오후9시
LONDON FOG 품목 : 82년형 바바리코트, 스포츠용 잠바, 일반잠바등
남녀물쎄무 : 투피스, 코트, 신사복
가죽 제품 : 쎄무코트, 쎄무잠바, 양털코트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波에 高物價항의 流血데모

軍政 通禁연장、交通·通信등 차단

그다니스크港 폐쇄 계획도

【바르샤바31日UPI=聯合】폴란드항도 그다니스크에서 30일 당국의 물가인상에 항의하는 유혈데모가 발생, 시위대원등 14명이 부상했다고 관영 바르샤바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시위가 자유노조운동의 진원지인 레닌조선소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전하고 당국이 이번 시위와 관련, 대부분이 학생인 2백5명을 체포, 약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당국이 소요의확산을막기위해 하오8시부터 다음날상오 5시까지로 통금을 연장하는한편 모든 민간교통 및 통신을 단절하는등 이도시에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전했는데 폴란드에서 최근의 물가인상조치에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한것으로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당국은 앞서 식량등 일부 생필품가격을 최고5백%까지 인상, 이를 2월1일부터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한 후 그간 경제학자등을 동원해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에 안간힘을 써왔다.

【빈31日AP·聯合】폴란드軍事정부는 2월1일의 대폭적인 물가인상조치에따른 국민들의 소요사태를 우려, 노조운동의 요람지인 그다니스크항을 폐쇄할 계획을 세운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바르샤바보도들은 2백~4백%의 대폭적인 물가인상 계획을 발표한 정부당국이 과거 이같은 물가인상에 반발하는 광범위한 대모사태가 발생했던 사실을 감안, 이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그다니스크항의 폐쇄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波軍政 규탄하는 대규모 沈默시위 폴타의 勞組연맹이 주도한 데모대원들이 30일 폴란드정부에 항의하고 폴란드노조를 동정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있다. 【발레타(몰타) 30日AP電送=聯合】

바웬사 會談제의 波軍政거부 지연

【바르샤바30日AP=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는 계엄정부에 대해 예비회담을 열것을 제의했으나 이회담이 당국에 의해 지연되고있다고 정통한 자유노조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바웬사가 정부에대해 자신이 지명한 두보좌관의 배석하에 정부각료와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정부당국은 바웬사가 두 보좌관을 대동하는것을 거부했으며 따라서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이 아직껏 열리지않고있다고 밝혔다.

"어떤威脅도 波勞組못꺾어"

레이건등 歐美지도자들 軍政규탄

【뉴욕31日AP·UPI=聯合】레이건미국 대통령을비롯,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대처영국수상등 서방각국지도자들은 31일 美국제교류처가 주관한폴란드군사정부를 규탄하는 TV쇼에 출연, 폴란드의 계엄통치를 비난하는 한편 폴란드자유노조에대한 지지를 다짐했다.

이에앞서 레이건美 대통령이 설정한「폴란드 자유노조 연대의날」인 30일 미국과 서독 캐나다및 일본각도시에서는 폴란드계엄해제와 구속자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군중집회가 일제히열렸다.

레이건미 대통령은 전세계 50개국이상에 방영된 이날 쇼에서『그어떠한 위협도 폴란드자유노조와 폴란드국민들을 탄압할수없다』고 말하고 계엄령의 해제와 구속자석방및 국내각계인사와의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한겨울의 수영복패션쇼 2명의 모델이 도쿄(東京)인근 후지·요시다(富士吉田)시의 한 아이스링크에서 31일진행된 한 패션쇼도중 올여름에 유행할 비키니수영복을 선보이고있다. 【富士吉田1日AP電送=聯合】

拉致車운전사 提報 도지어갇금 아파트

【뉴욕31日UPI=聯合】제임즈·도지어 미육군준장이 42일간 갇혀있던 이탈리아「붉은여단」의 아파트주소를 가리켜준 제보자는 작년 12월17일 도지어장군 피납당시 납치승용차를 운전했던 운전사였다고 미국ABC방송이 30일 보도했다.

ABC방송은 익명의 경찰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말하고 이 제보자가 지난26일 아파트소재지를 밝힘으로써 28일 도지어장군을 극적으로 구출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外貨難겪는 蘇, 유럽·日에 5억弗 비상借款요청

美선 拒否촉구

【뉴욕31日朝=聯合】심각한외화난을 겪고있는 소련은 유럽및 일본은행들에대해 5억달러의 비상차관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誌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1일 발매되는 뉴스위크誌는 그러나 소련의 이같은 요청과 관련, 미정부가 그동맹국들에 대해 소련의 대폴란드태도가 바뀌어지지않는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誌는 소련이 金의 방매를통해 외화를 확보하고있으나 이것이 국제금시세의 하락을 초래함에따라 서방은행에 대해 금을 담보로한 차관을 요청하기로 결정한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誌는 특히 소련이 곡물수입과 폴란드의 외채지불부담 그리고 루마니아 베트남등의 경제지원때문에 외화를 크게 필요로하고있는것 같다고추측했다.

癌細胞만 골라 집중治療

日 東北大연구팀 새制癌劑개발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만을 골라 치료하는 제암제가 일본東北대학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이 치료제는 지금까지의 약품보다 6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밝혀졌다.

東北대의 하시모도교수(橋本嘉幸)등 연구팀이 개발한 새암치료제는 단일크론제에 제암제를 결합시켜 만든것으로 아직 동물실험단계에있으나 약효가 뚜렷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새로운 암치료제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일크론항체는 암세포만이 갖고있는 항원만골라 결합하는 항체다.

하시모도교수등 東北대연구팀은 이 단일크론항체에 제암제인 애크티노마이신D를 투입하여 새로운 치료제로개발한것으로 단일크론제에 포함되는 항체를 결합시키는 특수 화학방식을 사용했다.

아이찌껜(愛知縣)암세포연구소는 새로 개발한 이 제암제를 암에걸린 흰쥐에 투여한 결과 리포좀 직경 1천분의1이하의 小球에 애크티노마이신 D등 제암제를 넣어만든 이약을 투입했더니 흰쥐의 암세포 전부가 소멸됐다는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손에 "발가락移植

◆失意 20代기계공에 새삶

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암담한 장래생각으로 실의에 차있던 싱가포르의 한 젊은기계공이 초현대의학덕분으로 새희망을 갖게 됐다고.

절망에 빠졌던 29세의 소히르·빈·테카드는 작년11월 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 싱가포르의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수술팀의 11시간동안에 걸친 수술을 받고 새손가락으로 글씨도 잘 쓸수있을 정도로 수술결과가 좋다는것.

그는 싱가포르의 선데이·타임즈지 기자에게 최근『작년 3월19일 사고에서 손가락을 절단당하고 절망속에 빠졌으며 부인은 나를 간호하는 부담을 견뎌내지못해 수술 1달전에 이혼했다』고 그동안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 【싱가포르=AP】

美의 對이支持대응 石油무기화등 촉구

아랍議員聯 정치위

【쿠웨이트1日頭=聯合】아랍의원연맹 정치위원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대해 석유무기화와 對美禁輸로 맞서자고 제창했다.

아랍의원연맹 정치위원회는 또 아랍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중지하고 미국내 아랍재산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치위의 이같은 제안은 PLO일원을 포함한 13개 아랍국과 PLO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원연맹총회에서 승인이 확실시된다.

3개 中東平和案 시리아, 對이提示

【베이루트31日AP=聯合】對이스라엘 강경 아랍국가들중의 하나인 친소 시리아는 31일 이스라엘과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킬『중동평화3개항』을 제시했다.

아메드·이스칸다르·아메드 시리아공보상은 이날 레바논주간지 먼데이·모닝과의 회견에서『공정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평화』로이끌수 있는 3개『기본요소』로서 ▲이스라엘이 67년 中東전에서 점령한 모든 영토의 반환 ▲팔레스타인영토에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건설할수 있는 권리의 인정 ▲아랍과이스라엘간의 전쟁상태의 종식을 들었다.

우유需給 안정위해 젖소5천마리 導入

농수산부는 소득수준향상에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있는 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우량젖소 5천마리 도입을비롯, 젖소증식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부족분 충당을 위해 3천톤의 분유를 수입할 계획이다.

1일 농수산부에따르면 이는올해 우유수요가 64만톤으로 전년의 57만3천톤보다 11·7%가 늘어나는반면 국내생산량은 58만8천톤에 불과 5만2천톤이 모자랄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印·파키스탄 合同委설치

不可侵條約협상 外相회담서 劇的합의

"파核開發 반대안해" 간디 友好條約체결提議도

【뉴델리31日UPI特約=聯合】독립후 3차례나 전쟁을 치른 아시아의 양인접 적대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30일부터 상호 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외상급회담을 시작한가운데 31일 양국은 쌍무관계처리를 전담할 양국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인디라·간디인도수상은 30일 처음으로 자신은 파키스탄과의 우호조약에 조인할 용의가 있으며 파키스탄의 평화적인 核개발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印度정부대변인은 아가·샤히 파키스탄외상이 이날 간디수상이 제의한 양국합동위원회설치안을 수락했으며 파키스탄은 印度와의 평화공존을 열망하고 있음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샤히외상은 이날 나라시마·라오印度외상과 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두번째 회담을 가졌는데 그는 1일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기전에 세번째 외상회담을 가진다.

한편 간디수상은 30일 샤히외상을 수행한 파키스탄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현재 진행중인 불가침조약체결과는 별개로 양국간의 우호조약체결을 제의하면서 자신은 파키스탄의 평화적인 核개발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좌중을 놀라게했다.

간디수상은 파키스탄의 核개발계획이 순수한 평화목적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에 반대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外相과 회담하는 간디印首相 인디라·간디 印度수상과 아가·샤히 파키스탄 外相이 31일 뉴델리에서 양국간의 불가침條約문제를 토의하고있다. 【뉴델리31日AP電送=聯合】

中共、對臺灣무기판매 時限附 묵인用意

【北京31日AP·AFP=聯合】중공은 31일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에 대한 중대양보조치로 미국이 일정기간만 대만에무기를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같은 무기지원을 종식할경우, 미국이 계속적인 對대만무기판매를 묵인할 용의가있음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관영新華社통신은 이날논평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시한설정을 전제로한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묵인용의를 밝히고『이를위해 미국과 기꺼이 협상할것』이라고 강조, 중공이 미·中共관계의 주요장애물이 되고있는 對대만무기판매를 둘러싸고 타협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공이 미·중공관계의 쟁점이 되고있는 對대만무기판매문제에 대해 타협용의가있음을 이처럼 강력히 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한설정을 요구하기도 이번이처음이다.

中共軍部 肅淸작업

黨政 整風운동맞춰

【홍콩31日=聯合】중공군부는 黨政부문의「정풍운동」에보조를 맞추어 군부내의 무능 부패분자및 좌익분자에대한 철저한 비판과 숙청작업을전면적으로 개시했다고 31일홍콩의 중공계석간지 新晚報가 보도했다.

蘇의 아프간侵攻 공동對處필요성

印·파키스탄 34년紛糾씻는 解氷움직임의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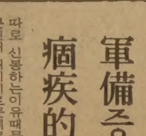
軍備증강따른 全面대결도 事前방지

痼疾的 캐시미르紛爭해결은 未知數

그동안 치열한 무기구입경쟁을 벌여온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和解기운이 싹트고있다. 두나라는 지난30일부터 상호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외상급회담을 개막한후 하룻만인 31일 쌍무관계를 전담할 양국합동위원회를 설치키로 전격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간디인도수상은 31일 뉴델리를 방문중인 아가·샤히파키스탄외상을 맞아 파키스탄의 불가침조약제의에대한 종래의 냉담한 입장을 바꿔 양국화해에 적극성을보였다.

간디수상은 이에앞서 30일 샤히외상을 수행한 파키스탄 언론인들과의 회견을통해 불가침조약과는 별도로 양국간의 우호조약체결을 제의하는 한편 평화목적일 경우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반대하지않겠다는 놀라운 발언까지했었다.



양국은 현재 현안의 캐시미르문제해결등에 별성과를 얻지못했으나 불가침조약엔 원칙적으로 상당한 합의를본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1947년 힌두와 이슬람 두종교를 따로 신봉하는이유때문에 양분된뒤 캐시미르문제로 두차례(47년및 65년), 방글라데시독립때문에 한차례(71년)씩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적대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두나라는 방글라데시 전쟁직후인 72년 심라협정을체결, 분쟁해결을위해 서로 무력에 호소하지않으며 캐시미르문제등 양국간 쌍무문제를 국제회의에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도 피차 군비증강으로 맞서왔다.

파키스탄은 81년 9월이래 인도에불가침조약체결을비롯 핵확산금지공동협정、양국군사력비율조정등을 제의했으나 인도측의 의구심만 자아냈었다. 인도로서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미제F16전투기 40대등 군원제공을 이미 동의한 뒤끝이라 승낙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무렵 파키스탄은 인도가 74년 핵실험을마친데다가 소제미그25기등으로 재무장을 하는데대해 대응하고 79년소련의 아프간침공후 소련세력을 저지하기위해 미국측에신예F16기의 제공을요청했다.

이같은 파키스탄의 공군력증강은 인도로하여금 프랑스제 미라지2000기의 도입협상을 벌이도록자극했고 최근엔 파키스탄도 질세라 미라지도입을 모색하는등 군사대결위기가 고조돼왔다.

이번 인도―파키스탄 외상급회담은 표면적으로 샤히파키스탄외상이 라오인도외상의 작년6월이슬라마바드 방문에이어 뉴델리를 답방、이루어진 의례적인것이긴하다. 그러나 종래 냉각됐던 양국관계에 숨통을 틀 불가침조약체결에 접근했다는점에서 성과도 적지않은것같다.

양국이 오랫동안의 숙원관계에도 불구、이처럼 화해를 모색하려는배경은무엇일까.

먼저 소련군의 아프간침공을 들수있겠다. 관측통들은 소련이 당장 파키스탄을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적으나 아프간군을 내세워 간접침공할 가능성은 없지않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소련이 아라비아해에 진출할수있는 길목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아프간점령을 반대해온 인도로서는 파키스탄의 對蘇대응노력을 남의일로만 볼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공군력증강등 인도―파키스탄간의 군비경쟁은 피차 위험이 따른다. 예컨데 파키스탄이 미제F16신예기를 확보한후 라자스탄의 인도 핵기지를 기습하지 말란법이 없다. 또한 인도도 파키스탄의 핵발전소를 공습할수있다. 더우기 양국의 핵시설은 마찬가지로 상대국국경에서 가까운곳에 있으니 피격 가능성은 큰것이다.

이번 인도·파키스탄 양국회담으로 34년간 지속돼온 양국간 대립관계가 단시일내 해소될것으로 기대할수는 없으나 72년 심라협정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어 결국 캐시미르문제등 현안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金善敎기자】

메아리

2월의 節度

아직 추위의 기승은 누그러지지 않아도 2월의 소리를 들으면 웬지 마음은 봄으로 한발 내딛는듯한 포근함에 젖는다.

구정을 보내고 입춘이 이달 4일이며 우수가 19일이라 달력이 2월로 접어들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것도 결코 절계를 섣불리 앞지르는 일이 아니라 되려 걸맞은 일임을 깨닫게된다.

하기야 봄이란 꽃과 잎이 피고 뭇새가 우짖는 그런 화창하고 나른한 봄 보다는 오히려 홍조를 떤 처녀의 볼과 같이 수액으로 물이 나는 나무가지나 여기저기 잔설 밑에서 파릇이 새색시의 수줍음으로 눈터오는 풀잎들이 늦추위의 시샘에 시달리는 이른 봄이 보다 더 봄답다 할것인지 모르겠다.

봄이란 피어나거나 영글거나 아니면 메말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으로 만물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게되는 절계니 무르익기 전의 새침함이 되려 제격일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전래의 민속 가운데서도 이맘때 한해의 소망을 위한 기원과 재앙을 쫓으려는 행사가 어느 절계 보다도 집중된다.

대략만 훑어 보아도 입춘일에는 춘축을 붙이고 입춘굿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보리 뿌리를 캐 봄으로서 한해 농사의 흉풍을 점치는 맥근점을 본다.

특히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는 안택을 해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빌며 마당 한복판에 낟가릿대를 세워 풍년을 기원한다. 또 모닥불 피우기, 복토훔치기를 하는가하면 제웅을만들어 내버리고 마당 쓸기나 생을대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하며 부럼을 깨물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약식,오곡밥,복쌈,자채식을 먹으며 백가반을 짓고 송떡을 한다.

그리고는 놋다리놀이며 사자놀이,쥐불놀이,횃불싸움,줄다리기에서전,답교,고싸움,차전놀이,원놀이,방실놀이,놓기세배에 기세우기,달집태우기,지신밟기,진대끌기,동신제,별신제등으로 온 마을이 왁자지껄 하다가 대보름이 지나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대보름 다음날은 귀신날이라 하여 이날 나들이를 하면 귀신이 붙는다고 외출을 삼간다. 또 이를 고비로 칼로 벤듯 흥을 거두고 새봄의 새일을 위한 다짐과 그 실천에 들어갔던 선인의 절도를 본받아야 하는것이 바로 이달에 우리가 새겨야할 일인가 한다.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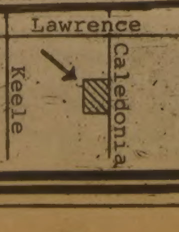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Jan. 25 - Feb. 6 '82

Neilson reg choco bar	36x40¢	9.59
Smiles & chunkes choco bar	36x40	9.59
Hershey reg choco bar		9.59
Cadbury reg choco bar		9.59
Rowntree reg choco bar		9.59
Peek freans cookie shortcake& fruitcreme	24x30	4.79
Fleers double bubble in tub	200x5¢	6.49
Sun Pac juice grapefriet(unsweet)		8.49
All other flavour		7.99
Icv cup	150x5¢	4.55
Additional Special		
Hi-dri towel	18x2's	17.99
Delsey T. Tissue	24x2's	17.45
Best big light bulbs 40w, 60w, 100w,	12x2's	7.4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주시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死刑이 無罪로…충격과 환호

高淑鍾 피고인 宣告法廷 주변

선고순간 高여인은 엎드려痛哭
침통한檢察 증거보완抗訴 비쳐

무죄가 선고되는순간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공판정에서 이따금 연출되는 역전드라머중의 하나이면서도 그 의미와교훈이 그 어느때보다 깊고 엄숙한 순간이기도 했다. 이사건은 그만큼 관계자들 모두를 착잡하게 만들어왔던 「사건중의 사건」이었다. 공판정을 지켜본는 기자나 방청객들은 그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증거제일주의」를 내세워 「인권」을 지켜나가고 또 지키려는 「시대의 흐름」을 느낄수 있었다.

◇家族들의 "만세" 선고 재판이 끝난뒤 高淑鍾피고인의 아버지 高聖昌씨(오른쪽)와 남편 尹永培씨(왼쪽)등 가족들은 법정밖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검사 "최선다했다, 할말없다"

선고순간 35분간에 걸친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이 있은뒤 마침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高피고인은 앞으로 엎드린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방청석의 가족들도 이순간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불렀다. 방청석 맨뒷자리에서 홀로 앉아 판결내용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남편 尹永培씨(47)는 앞자리에서 달려온 장녀 美暻양(19)등 가족들과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다 정리의 주의를 받으며 퇴정당하기도했다.

선고가 끝난뒤 金憲武재판장등 재판부가 퇴정하자 이날따라 검사석에 홀로 나와있던 鄭相明검사는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다가 고통스런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이날 공판정에

방청석 는 高피고인의 남편 尹씨를비롯 장녀 美暻양, 친정아버지 高聖昌씨(70), 친정동생 高鍾旭씨부부, 친정여동생등 가족과 高피고인의 서울大 음대 성악과 동창생들및 일반방청객등 1백50여명이 나와 판결순간을 지켜봤다. 재판장의 「피고인 高淑鍾」하는 호명이 있자 高피고인이 교도관 2명에 이끌려 출정했는데 高피고인은 이전공판때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구부정한 모습이었으나 얼굴색은 전과 한 편이었다.

高피고인은 재판장의 판결 이유가 낭독되는동안 피고인석앞 책상에 두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채 서있다가 5분쯤뒤 재판장이 『高피고인의 팔꿈치와 다리등에 멍든자국이 있었고 잠을 자지못했으며 부당한 신체의 장기 구금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이 낭독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싸안았다.

◇"오열하는 被告" 재판장 金憲武판사(법대 중앙)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동안 高淑鍾피고인은 피고인석 난간에 기대채 계속 흐느끼기만했다.

"가장 어려웠던 사건"
金부장판사 保安위해 判決文 직접타이핑

재판부 이사건의 재판장인 金憲武부장판사(41)는 선고공판이 끝난직후 『이번 사건이 판사생활 15년동안에 가장 어려운 사건중의 하나였다』면서 『검찰도 소송수행을 잘했다고 본다. 高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자백을 해 내가 검사라도 기소했을것같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金부장판사는 세인의 주목을 유례없이 모았던 큰사건을 맡았으면서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않고 차분한 진행을 해왔다.

지난해 靑松방화살인사건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던 판사이기도한 金부장은 지난연말 모친상을당하고도 슬픔에 잠길 겨를도없이 재판에 몰두해왔다.

이사건 주심을맡은 우배석 金炳옥판사(30)는 高피고인의 구속연장을 발부했던 법관. 법관경력 3년의 초임이지만 조용한말투로 피고인과증인들에게 날카로운질문을던져 주위로부터 「수사관」이라는 별명을 얻기도했고, 좌배석 李亨夏판사는 25세로 서울형사지법 최연소 법관.

판결문초고는 주심인 金판사가 최종합의가 끝난때부터 1주일정도에 걸쳐 썼는데 판결문초고의 타자를 보안상 타자수에게 맡길수없어 지난주 토요일(1월30일)에 金부장판사와 金판사가 아예 아파트를 빌어 출근, 그곳에서 초고를 절반씩 나누어 각각 12시간이나걸려가며 직접 타이핑했다는 뒷소식이다.

"명백한證據 요구 일하기 어려워져"

검찰 서울지검은 이판결결과에 큰충격을 받은듯했다. 鄭相明검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서울지검으로 돌아와 丁海昌검사장에게 재판결과를 보고한데 이어 관계검사들과 대책회의를 갖는등 부산한움직임을 보였다. 金부장검사는 이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할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항소심에서 증거수사를보강 해다시 최선을다해보자』면서 함께간여한鄭검사를위로했다.

이날 무죄소식이 전해지자 청내는 갑자기 침통한분위기로 돌변했는데 한검사는 법원이 명백한 직접증거를 요구하는 최근 일련의 강력사건판결 경향에대해 『정말 일하기가 더 어렵게됐다』고 걱정하면서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증거가 완전인멸된 사건의경우는 살인현장을 영화필름으로 촬영해 놓기전에는 유죄입증을 못하는것이 아니냐』고 흥분했다.

개정 金憲武부장판사를 선두로 우배석이자 이사건 주심을 맡은 金炳옥판사, 좌배석 李亨夏판사순으로 입정한후 피고인이 출정하자 선고공판은 곧 상오 10시정각 시작됐다.

변호사석에는 吳制道변호사의 모습은 보이지않고 평소피살된 尹씨와 친분이 두터웠으나 高피고인의 결백을 믿어 자진변론을 맡았다고해서 주목을 끌었던 金炯변호사가 혼자 나와있다. 검사석에도 金부장검사는 나오지않고 鄭相明검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재판장 金부장판사는 관결문낭독전 마음을 가다듬는듯 잠시 두손으로 얼굴을감싸고 생각에 잠겼다가 낭독을 시작했다.

가족들 선고후 정리에 의해 재판정밖으로 밀려나온 가족들은 흥분이가시지않은듯 『金憲武재판장만세』『대한민국만세』를 외치며 이구동성으로 『당연한 판결이다』『재판장이 나왔다』『명관결이다』며 기쁨을 나누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한때 高피고인과 공범으로까지 몰렸던 高피고인의 동생 高鍾旭씨(38)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면서 『일반시민이 알고있는 내용중엔 터무니없는 사실이 많았는데 이기회에다 씻어졌으면좋겠다』고 말했다.

친정아버지 高聖昌씨도 『그동안 가족들이 새벽마다 꼬박꼬박 기도드리며 무죄를 빌었다』면서 『그동안의 물적·정신적피해는 말로다 표현못한다』고울먹였다.

남편 尹씨역시 『나자신 검찰에 몸담고있었지만 경찰이 엮어다준대로 기소한 검찰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이기회에 반성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너무 기뻐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문등 不條理 이기회에 追放

변호인반응 吳制道변호사는 『이번기회에 수사기관의 고문등 헌법위반행위는 추방되어야하며 당국은 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金炯변호사도 『처음 현장실괴왔을때부터 무죄를 확신했다』며 『高피고인의 성격이나 평소행동으로보아 범행동기가 의심스러웠고 高피고인의 사건당시 살고있던 집도 尹씨가 사준 것인데 또다시 아파트를 사달라고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女大生」이은 連打에 허탈 警察

경찰 朴尙은양피살사건의 범인이 뒤바뀐 충격이채 가시기도 전에 高피고인의 무죄판결이나자 경찰은 또한차례 큰충격을 받고 허탈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서울시경의 한고위간부는 이러한 경찰수사의 결말에대해 『앞으로 경찰수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지만 경찰은 좌절하지않고 과학적인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尹보살 사건수사에 직접 참여하기도했던 한직원은 『高여인이 구속된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흘리며 속죄까지했는데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한것은 쉽게 납득이가지 않는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했던 龍山경찰서에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李尙薰서장을 비롯, 수사간부들이 河형사사건으로 경찰을 떠난데다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중에서도 상당수가 타경찰서로 전출, 당시 수사에 관계했던 직원은 千貞植경장(35)등 4명만 남아있을뿐인데 이들도 한결같이 『河형사사건등으로 재판결과가 불안했으나 무죄가선고될줄은 몰랐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姜原一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성질의것이 못된다』면서 『高淑鍾사건과 내가 무슨관계가 있느냐』고 언짢아 했다.

비워둔채 大門잠겨

尹보살집 서울龍山區元曉路1街128의14 尹景花씨의 빈집은 1일에도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다.

尹보살 집에는 그동안 조카 尹光培씨등 친척들이 살다가 장례등 뒷처리를 끝낸뒤엔 이웃에사는 尹보살의 손질녀 朴英姬씨(30·元曉路1街31의4)와 남편 吉永福씨(32·철쇠수리업)가 관리해왔는데 朴씨부부는 지난22일께 남편吉씨의 고향인 전남潭陽으로 구정을쇠러 내려가고없었다.

그러나 이날 이웃주민들은 범인으로 알고있던 高淑鍾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뉴스를 듣고는 새삼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면 진짜범인은 도대체 누구냐』고 궁금해했다.

朴양사건關係없다

서울지검東部지청 朴尙은양 사건을 재수사해왔던 서울지검 東部지청은 이날 高피고인에대한 무죄선고사실에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朴양사건과는 무관하다는점을 강조했다.

朴양사건을 수사지휘했던 ... 이번사건처럼 검찰이 법정에서 실패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형편어려운 農漁村 校服 올부터自律化
李文敎

【大田=】李奎浩문교부장관은 30일 중고등학생들의 머리모양 자율화는 금년도에, 교복자율화는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농어촌학부모들의 형편이 어려워 자녀들의 교복마련에 부담이 된다면 올해 새학기부터라도 지역에 따라 교복자율화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실업전문대학장회의에 참석한李장관은 충남도교위에 들러 尹哲炳교육감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교육행정은 일선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民防衛훈련 10시간으로
通禁철폐로 늘려

정부는 1일 통금철폐후의 치안유지와 민방위대의 전력강화를 위해▲일반지역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을 현재의 4~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다원화된 각급 직장민방위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82민방위대 운영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내무부가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한 이 방안에 따르면 각급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을▲일반지역대원은 연4~8시간에서 10시간으로▲직장대원은 6시간에서 10시간으로▲신규편성 지역대원은 7~9시간에서 16시간▲직장대원은 9~11시간에서 16시간▲민방위대장은 8~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幼兒園長교육 참석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일하오 京畿 水原市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열린 금년도 전국새마을협동 幼兒園원장교육 개강식에 참석, 격려사를 한뒤 약1시간20분동안 강의를 들었다.

오는 3일까지 계속될 이 유아원 원장교육에는 2백65명의 전국 새마을협동유아원 원장이 참가하고있다.

恐龍발자국 化石 固城해안서 발견

【晋州=】경남固城郡下二面德明里 해안 암반지대에서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慶北大학교 사범대학 지질학조사단(단장 梁承榮·지구과학과교수·47)일행 4명은 남해안지질의 암반 지질조사를 하던중 31일하오 4시께 공룡화석 발자국 1백여개를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공룡발자국은 길이 32㎝, 넓이 24㎝크기의 거대한 새발자국모양으로 해안 암반지역 2백여평에 찍혀있었는데 이조사단은 이같은 사실을 학계에 알리는 지질학회에 보고하고 현장 보존하기로했다.

◇지질학 조사단원들이 경남 固城郡下二面德明里 해안 암반지대에 움푹움푹 들어간 공룡발자국 화석을발견, 조사를 하고있다. 【晋州=鄭】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 미도파 보석부 ·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 신 수 오 팔 · 536-1692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광고정정
한국일보 4일(목요일)자 제 10면에 식품점 특별세일 광고중
D.Y.보리차 값은 $1.59
D.Y.옥수수차 값은 $2.59
로 정정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8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엑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3體級 석권한 베니테스 미들급 해글러에 挑戰

강타자 두란에 判定勝 82년장식

오른쪽훅은 殺人的… 危機때 프로근성강해

프로복싱 WBC슈퍼웰터급(WBA에서는 주니어미들급으로 호칭) 챔피언 윌프레도·베니테스(24·푸에르토리코)는 31일 파나마의 노장 로베르토·두란(31)에게 15회 판정승을 거둠으로써 82년 벽두 화제의 선수로 등장했다.

17살때인 지난76년 3월 안토니오·세르반테스(콜롬비아)로부터 WBC주니어웰터급 타이틀을 빼앗아 프로복싱사상 최연소 세계챔피언으로 각광을 받았던 베니테스는 79년1월 카를로스·팔로미노(멕시코)를 판정으로 제압하고 WBC웰터급 챔피언이 되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당시 WBC슈퍼웰터급 챔피언이던 모리스·호프(영국)에 도전하여12회 KO승으로 타이틀을 차지, 3體級석권의 꿈을 이루었다.

현역선수로 3체급 정복의 기록을 갖고있는 복서는 베니테스와 니카라과의 복싱천재 알렉시스·아게요(30)둘 뿐이다. 알게요는 74년11월 루벤 올리바레스 (멕시코)를 13회 KO로 물리치고 WBA 페더급 王座에 오른 후 78년에 WBC슈퍼 페더급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고 지난해 6월 WB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있다.

베니테스는 두란을 물리친 후 『WBC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반납하고 WBA·WBC 미들급 통합 챔피언 마빈·해글러(미국)에 도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 만약 베니테스가 해글러를 물리친다면 프로복싱 전인미답의 신화를 창조하게 되는것이다.

세계 타이틀 3체급 석권 선수는 현재까지 6명에 이르고있으나 세계타이틀 4개를 차례차례 점령한 복서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선수가 4체급 정복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낼것인가. 미국의 권투관계자들은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수로 단연 베니테스를 꼽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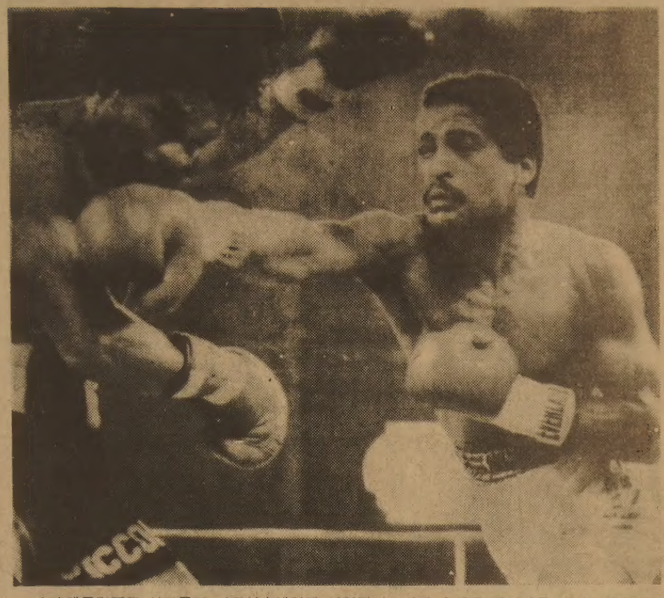
이미 3체급을 정복한 알게요는 여전히 날카로운 펀치력을 보이고있으나 나이(만30살)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있으며, WBA 주니어미들급챔피언 아유브·칼룰레(우간다)를 물리친 바있는 슈거·레이·레너드(미국)도 현재 자신이 갖고있는 웰터급 통합 타이틀을 지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몸무게가 급격히 늘지 않는한 미들급 도전은 생각할수 없는 입장.

베니테스는 체중증가로 슈퍼웰터급으로는 도저히 뛸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함께 올해 24살(58년9월12일생)이라는 젊음이 강점이다.

현재 42승(26KO) 1무 1패의 전적을 갖고있는 베니테스는 강훈련에의해 다듬어진 선수가 아니라 천부적인 자질에의해 세계정상에 오른 복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게임이 정해지면 몸을 풀 정도의 연습이 고작이고 세계타이틀 매치 때에도 강훈기간이 2주일을 넘지 않는다는것. 그러나 79년11월 레너드에게 WBC웰터급 타이틀을 잃은후 자극을 받아 훈련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오른쪽 [illegible] 자랑하고 있으며 위기에서도 [illegible] 강함을 보여주는 선수. 77년11월 부르스·커리와의 10회전 경기에서 두번 녹·다운 당했으나 끝까지 버티면서 반격, 역전 판정승을 거둔일도 있었다.

72년부터 7년간 세계라이트급 타이틀을 주름잡던 『돌 주먹』 두란은 베니테스에 패함으로써 현역은퇴가 [illegible]

訓鍊은 몸풀정도, 타고난 복서
4體級도전 史上 最初



◇4체급정복의 신기록이 어떤선수에의해 세워질까。이미 3체급 챔피언을 지낸 윌프레도·베니테스는『미들급 통합 챔피언 마빈·해글러에도전, 새로운 신화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사진은 31일의 WBC 슈퍼·웰터급 타이틀 매치서 베니테스㉮가 도전자 두란의 턱에 강타를 넣는장면。베니테스가 판정승했다。

[illegible] 2월들어 우리나라 권투팬들의 관심을 끌 경기는 10일 大邱서 열리는 WBC슈퍼라이트급 챔피언 金相賢과 日本의 [illegible] 매치와 黃忠載-루에바스간의 웰터급 12회전. 黃-루에바스전을 주최하는 롭·랭크사는 黃이 이겨도 좋고, 루에바스가 이겨도 상관없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루에바스를 끌어올려 레너드와 대결시키기 위해 이번 대전을 추진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웰터급 통합챔피언 레너드는 오는 15일 네바다주 레노에서 부르스·핀치의 도전을 받아 방어전을 벌이게 된다. 日本매스컴서는 日本을 방문중인 롭랭크社의 보브·애런사장의 말을 인용, 레너드와 미하라(三原正·현 WBA주니어 미들급 챔피언)간의 대전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으나 기량과 흥행가치면에서 미하라는 레너드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金莊契기자】

한국、泰國에 敗北

體力·技倆열세 7對2로

토머스컵 배드민턴

【방콕31日=聯】 韓國남자배드민턴팀은 31일 방콕국립체육관에서 속행된 토머스컵 東아시아지역예선 2일째 경기(단식3·복식2)에서 泰國팀에 4-1로 져 통산 7-2로 패했다.

韓國은 이날 단식에서 金重洙가 삭차이에 2-1로 져 [illegible] 朴柱奉·崔秉學은 우파라크라포른에게 각각 2-0으로 지고 복식에서도 朴柱奉·李恩求조 金重洙·崔秉學조가 수라퐁·피니트조와 크리앙사크·사차이조에 각각 2-1, 2-0으로 패했다.

韓國선수들은 이날 3천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전했으나 체력과 기량의 열세로 단1게임밖에 이기지 못했다.

泰國선수들은 스매시·트릭플레이기량이 우수했다.

韓國선수들가운데 金重洙는 마지막 복식게임중 더위에 지쳐 코피를 흘리며 시합을 끝냈다.

韓國은 泰國과의 첫날경기에서 3-1로 리드당했다.

나의 이력서

〈聽字 元一漢〉

元一漢 ㊸

強制 추방

釜山거쳐 渡日 한때收容所에

감리교신학교에 감금된 선교사등 외국인 13명이 완전히 풀려난것은 추방하루전인 1942년5월31일이었다.

이에 앞서 그해 4월20일께 각자 기 집에가서 짐을 싸놓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했다. 유한양행에 근무하는 白러시아계 헤플러씨와 헝가리인 바라트씨등은 우리보다 한발 먼저 풀려났다. 미국인이 아니라서 일찍 보내준듯 하다. 우리 父子는 풀려난지 한주일도 못돼 다시 감리교신학교 교실에 연금됐다. 이때는 지난번 연금된 사람중 반가량이 제외되고 선교사만 따로 수용한 것이다.

연금생활을 마치고 나오는날 일본경찰은 그동안 식사를 집에서 날라다 먹은 날짜를 일일이 계산하여 예산에 책정된 식비를 내주었다. 식비는 하루11전이었다. 내가 延禧전문학교에서 받은 월봉이 3백원가량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비하면 하루 11전의 식비는 너무도 적었다.

하루 11전이란 돈이 지금의 11원의 개념과 같았었는지는 40년전의 일이라 확실치 않다. 아뭏든 이돈으로 연명해야 하는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의 처지를 걱정한 기억만은 또렷하다.

풀려나던 길로 가족들과 함께 서울역으로 나가 기차를 탔다. 바로 강제추방이었다. 이때 한국에 남아있던 외국인은 모두 추방당했으나 막팔란이라는 캐나다인 광산업자만은 추방에서 제외됐다고 들었다. 그가 추방당하지 않은 이유는 부인이 일본여자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70세가까운 노인이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않다.

추방당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손에 들고갈수 있을만큼의 짐만 허용됐다. 한사람앞에 비상용 가방 2개가 고작이었다.

추방열차는 平壤·서울·大邱역에 집결한 외국인들을 차례로 태우며 남으로 내려갔는데 외국인은 모두 1백1명이었다.

釜山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열차안에서 소령계급장을 단 일본군인 하나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을 향해 심한 욕을 퍼부었다. 거의 때릴 자세였다.

釜山에서 關釜연락선을 타고 일본시모노세끼까지 갔다. 연락선은 밤에 떠나는데도 2·3등 선실에올아넣고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게했다.

◇1942년 여름 추방당할때 선상에서 찍은 선교사가족들의 기념사진。앞줄㉮로부터 나의 동생 得漢·둘째·아내·막내여동생 恩惠。

橫濱서向美…아내는 速記책뺏겼으나 戰後되찾아

시모노세끼에서 다시 기차를타고 고오베로 옮겨져 이민가는일본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일본이민훈련원에 수용됐다.

살벌하던 한국에서와는달리 일본에와서는 오히려 대우가좋았다. 추방당하는 외국인들을 향해 욕을 퍼붓는사람도 없었고 어떤 반감을 보이는것 같지도 않았다.

경비원의안내로고오베시내외출까지 허락됐고 쇼핑도 할수 있었다.

한국을 출발할때부터 장인 데이비슨씨와 미국메리놀소속 천주교 신부한분은 병중이었다. 나의 장인은 차차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페로퀸神父는 끝내고오베에서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일행 1백명은 고오베에서 다시요꼬하마로가 한국마루에 승선했다.

요꼬하마에서 배를 타기전 일본경찰이 우리들의 짐을 세밀히 검사했다. 아내는 한동안 속필을 공부했었는데 한정된 비상가방 속에 속필에관한 책 2권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왔다.

일본경찰은 아내의 예상대로 [illegible] 것이라면서 이를 압수했다. 아내는 일본경찰이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위해 무엇인가를 압수할것이며 그대신 결혼사진등 다른 물건은 보호할수 있을것이라 예상했는데 그생각이 적중한것이다.

46년엔가 우연히 이때 압수당한 속필책 2권이 在日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주인을 찾아왔다. 그 경위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전쟁의 와중에도 없어지지 않은사실이 신기하기만하다.

한국등 14개국參加

5회프레지던트컵 아마복싱 개막

【자카르타31日AP=聯】 제5회프레지던트컵쟁탈국제아마복싱선수권대회가 1일부터 6일간 한국과 美國·蘇聯등 전세계14개국선수들이 참가한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린다고 대회조직위원회대변인이 31일발표했다.

지난78년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우승컵증정으로 창설된 이대회는 11개체급에 걸쳐 경기를 벌이게되며 79년과 81년에 패권을 차지한 蘇聯이 이번 대회에서도 세번째 우승을 노릴것으로 보인다.

80년도 우승국이며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2위를 차지할것으로 예상되며 78년1회대회에서 우승한 美國과한국·日本이 3위를놓고 경쟁을 벌일것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이번대회의 참가국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참가인원)

美國(6) 파키스탄(6) 이탈리아(5) 蘇聯(10) 필리핀(4) 한국(3) 이집트(6) 타이(2) 말레이지아(2) 濠洲(3) 日本(6) 인도네시아(33) 홍콩 싱가포르

氷速1만m 世界新

스웨덴 구스타프손

【오슬로31日AP=聯】 스웨덴의 토머스·구스타프손은 31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올림픽스테디움에서 열린 유럽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만m경주에서 14분23초59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3년만에 스웨덴에 첫 종합우승을 안겨줬다.

英國배우겸 歌手 할러웨이翁 사망

【런던30日UPI=聯】 뮤지컬영화 『마이·페어·레이디』에서의 둘리틀역으로 세계적인명성을 얻은 英國배우겸 가수 스탠리·할러웨이翁이 30일英國의 한요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91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⑫

『땅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런얘기도 되겠군』

유원장이 논두렁에 엉거주춤 앉으면서 말했다. 수지도 따라 앉았다. 수지에게 지금 중요한건 땅이 예전 땅이 아니란게 아니라 유원장이 예전 유원장이 아니란 거였지만 그걸 구태여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낌새가 수지로 하여금 여러 말을 줄이게 했다. 대신 유원장이 혼자서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건 수지 말이 맞아. 땅이 거름냄새대신 휘발유냄새에 맛을 들이면 돈독이 올라 곡식이나 푸성귀를 기르는 대신 숫제 황금을 낳으려 들거든. 꿈도 크지. 나야말로 꿈도 크지. 고아원장이 부동산 장사에 눈을 떴으니. 내가 저동산을 싸게 팔고나서 한동안 배아파하니까 저동산을 온갖 감언이설로 팔게한 거간꾼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한줄 알아? 그땅대신 앞으로 오를 땅을 잡아주겠다는거야. 자기하고 손 잡자는 소린 줄 [illegible] 땅을 바라 [illegible] 그 작자 말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손발이 맞으면 앞으로 돈벌기는 땅짚고 헤엄치기래. 수지도 아까 점 다방에서 실컷 봤지. 요새 그 근방엔 땅짚고 헤엄치는 친구들 천지니까. 땅을 바람나게해서 돈버는 방법이 이제 막 시작이어서 신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적어도 십년 동안은 그만큼 수지 맞는 사업도 없을테니 두고보라는 거야. 오십년대의 가장 수지맞는 사업이 뭐였는줄 알아? 자선사업 고아원이었다구. 쎄고 쎈게 고아지, [illegible] 분배과정은 [illegible] 어수룩하지. 고아사업해서 자수성가하고 자기자식 실컷 호강시키고 외국유학까지 보낸 동업자들을 나는 얼마든지 알고있지』

『선생님은 제법 그러지도 못하셨으면서 그런 말씀은 뭘하러 하세요?』

수지는 딱한듯이 그를살피면서 말했다. 마치 주책부리는 육친 대한듯 얼굴이 화끈해졌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건 내가 이래뵈도 첨단만골라서 하고있다는 거지. 고아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재빨리 손을 떼고 다시 앞으로 십년간을 내다본 사업의 선두를 달리려 하고 있어. 어때? 내 순발력이. 땅장사 보다는 고아원사업이 거룩하다는 고정관념 없이 날 봐줬으면 좋겠어』

유원장이 열심히 으스대려고 있었지만 [illegible] 늘어놓는 변명처럼 과장되고 떳떳치못해 보였다.

수지는 갑자기 그에게 친자식이 없다는 것과 연령차가 열살도 넘는 사모님 생각이 나면서 그가 참혹하게 늙어 보였다. 그의 [illegible] 고아들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친자식이 없다는걸로 불쌍하거나 슬퍼보이긴 처음이었다.

종점 다방에 진을 치고있던 거간꾼 같은 이들이 서너명 몰려나와 [illegible] 논두렁을 [illegible] 허둥대며 비켜섰다. 그리고 손짓 발짓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면서 [illegible] 먼산까지를 자유자재로 [illegible] 거간꾼들의 모습을 [illegible] 바라보았다.

다시 논두렁에 앉은 수지는 손톱이 새까맣게 되도록 흙장난을 했다. 아직 얼어붙기 전인 흙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속에 살아있는 풀뿌리는 질기고 녹녹했다. 유원장은 편안치 못하게 엉거주춤 앉아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流星의 賦 <29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㉙

『도중의 먼지를 터시옵소서』

하는 것이어서 히데쓰구는 휴게소로서 마련된 기노시따요시다까(木下吉隆)의 저택으로 안내되었다. 그런데 몸을 들어서자 이곳 저곳의 제문(諸門)이 닫혔다.

이때 히데쓰구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다. 이윽고 섣으로부터 사자가 왔다. 수길의 명령을 전했다.

『배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옵니다. 그대로 낙발(落髮)하여 고야산(高野山)으로 가라는 명령이옵니다』

그날 히데쓰구는 중의 형상으로 후시미를 떠나 청숙사(青宿寺)에 들었다.

닷새가 지난 날 수길의 사자들이 각각 상당한 인원을 거느리고 고야산에 올라왔다. 정사(正使)는 후꾸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였다.

『틀림없이 마사노리가?』

하고 히데쓰구가 따졌다.

『틀림 없습니다』

하는 답이 돌아왔다. 히데쓰구는 자기의 최후가 왔다고 단념했다. 후꾸시마 마사노리완 히데쓰구 어린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 마사노리가 정사로 왔다고 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일이었다.

「죽음」과연 사사(賜死)였다.

그 순간부터 히데쓰구는 여태까지완 전연 다른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죽어야 한다는 명령을 들은 그 순간 히데쓰구는 자기의 학사고문(學事顧問)인 승서당(僧西堂)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바둑은 히데쓰구의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때 마사노리의 전갈을 받은 측근의 사사까베(雀部)란 자가 와서 『죽음의 준비』가 다되었다고 알렸다. 히데쓰구는 바둑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이겼다』

고 했다. 바둑에 이겼다는 것이다.

『모두들 보아두라. 내가 이겼다』

아닌게 아니라 히데쓰구가 이긴 바둑이었다. 그가 서당(西堂)과 바둑을 두어 한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이날 이때에 이긴 것이다. 여간 기뻤던것이 아니었던 모양으로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히데쓰구는

『지금 나는 절복(切腹)하러 가거니와 이 바둑판은 흐트러지지 않게 저 구석에 옮겨놓고 뒤에 자세히 살펴 보라』

고 하곤 사사까베에 향해 말했다.

『유서를 쓰고 싶다. 용서하겠느냐』

히데쓰구는 자기의 실부(實父), 정실, 첩들에게 간단한 유서를 썼다. 그런데 그 필세(筆勢)는 약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끝나고 나서 붓을 던지곤 서당에게

『나의 일생은 태합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죽음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러나 내 배를 자르는 것은 내 수중에 있다』

그것만이 자기의 의사란 감회가 시킨 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너는 승려이다. 넌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당은

『말씀 마십시오. 소승은 소승의 요량으로 죽는 겁니다』

하고 그 역시 죽음의 준비를 했다. 서당은 히데쓰구를 꾀어 후시미로 가게한 나승의 조카였다. 그는 숙도의 거짓말을 부끄럽게 여겨 나름대로의 각오를 한것이었다.

서방십만억토(西方十萬億土)에 부처님이 있다는 교설에 따라 서쪽을 향해 죽으라고 했지만 히데쓰구는 부처님은 십방(十方)에 있다면서 동쪽을 향해 배를 갈랐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박경욱
533-2361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368-4215, 368-0114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Bathurst Bayview Bloor CHINA HOUSE

教育제도 全面改善 움직임

各黨、다음臨時國會서 代案제시

大入試등 問題點 크게부각

中高平準化대책등 檢討 民正
本考査부활 競爭體制로 民韓
졸업定員制를 學點制로 국민

前期대학입시뒤 현행 大入試제도를 둘러싸고 개혁是非가 크게 오르내리는것과 때를같이해 民正, 民韓, 국민당등 주요정당들은 일제히 교육제도개선을 당면한 중요爭點으로 삼고 代案마련에 나섰다. 이같은 與野의 교육제도개혁움직임중 특히 大入試제도개선촉구는 『현행大入試제도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문교당국의 입장과 크게 대립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與野는 교육제도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오는 2월16일의 국회文公委와 빠르면 2월말께 소집되는 제110회 임시국회에서 각기 代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정부와 各黨간에 커다란 논란을 벌일것 같다.

民正黨 지난주 정책관계자들이 현행 大入試제도를비롯, 대학졸업정원제·중고교 平準化등 교육제도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한데이어 2월초에 교육제도전반에걸쳐 문교부측과 협의한뒤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民正黨은 29일 李奎浩문교장관을 중앙당사로 초치, 정부측의 정책방향을 타진한데 이어 黨정책관계자들이 계속 정부측과 협의를갖는한편 黨소속 문공위원과 정책실무자들이 합동협의를 벌이고 교육제도전반에 걸쳐 검토에나섰다.

鄭順德정책위의장은 2월에 열릴예정인 黨政협의에서 大入試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에대해 문교당국의 자체평가를듣고 大入試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民韓黨 文公分科委 잡 林在正의원(위원장)은 30일 「대학入試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발표, 대학 입시제도에있어 학생들이 자신들의실력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도록 공정한경쟁체로 轉換하여 本考査제도를 부활하고 문제점투성이인 卒業定員制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文公分科委는 이어 利害나情實에 좌우될 우려가많고 고교교육에 많은 부작용을끼치고있는 成績內申制도 폐지할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民韓黨은 『현재우리의교육제도는 지나친규제와 부질없는 간섭으로 敎職者들은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일선교육기관은 명령과 추종관계에얽매여있다』고지적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실현을위해 중앙집권적인 문교부의권한을 대폭지방으로이양,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정책의 立案·審議를위해 교육계 중진으로 구성되는 권위있는 기구를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 교육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金永光의원)는 30일 ▲週5日制 수업실시▲大入試제도의 자유경쟁▲졸업정원제 폐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개선기본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국민당은 이방안에서 大學入試제도는 本考査제도의 부활을 전제로 자유경쟁을 원칙으로해 학교자율에 맡기고 졸업정원제를 폐지, 學點制졸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金위원장은 이날국민당의 기본방향은 학교의자율보장, 학생능력존중, 교육의 質的향상을 목표로 한것」이라고 말하고 『週5일수업제에 관한 건의안을 내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週5일수업제는 앞으로 가능한한官公署와 기업체의 週5일제근무방향과 맞추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의 三位一體교육을 지향하기위한 것으로 우선 초등교육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의 기본방향은 또 6·3·3·4의 현행學制를단축, 조정하고▲知能의 早期개발을 위해 就學年齡을 현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고▲高校平準化 시책의 정착을위해 학교시설과 교사의 평준화를 이룩하고 학교별로 특성과 전문성함양을위한 英才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대학생의 敎養기회를 확대하며▲각계인사로 구성된「교육제도심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등으로 되있다.

담배값 引上

教育稅반영 솔5百원·은하수3百50원 어제부터

30일부터 3백원이상짜리 담배값이 현재보다 10%이상 씩오른다.

이번 담배값인상은 올해부터 고급담배에 10%의 교육세가 새로 붙기때문이다.

이번 담배값조정으로 솔 거북선 태양은 현재 4백50원에서 5백원, 수정은 3백50원에서 4백원, 은하수 한산도는 3백원에서 3백50원, 관광용 태양(12개비)은 2백70원에서 3백원, 한강(12개비)은 2백원에서 2백20원으로 오르게된다. 또 하루방은 1백g짜리가 1천원에서 1천1백원, 50g짜리가 7백원에서 8백원, 연송대형(3개비)은 3천원에서 3천3백원, 중형(5개비)은 2천원에서 2천2백원, 소형(10개비)은 2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오른다. 그러나현재20개 1갑기준으로 2백원미만인 청자 샘 환희 협동 새마을 한등은 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번 담배값조정으로 소매상 마진은 5백원짜리의 경우 종래 25원에서 30원으로 오르게된다.

솔담배의 경우 현재 전매청이 소매상에게 관는 값이 4백25원인데 여기에 교부세 42원50전과 소매마진 30원을 합쳐 4백91원50전이 되지만 시중 판매가격은 5백원으로 하고 시판가격과의 차이 2원50전은 전매익금으로 처리키로했다. 한강의 경우는 12개비들이인데 이를 20개비들이로 환산해 교육세를붙여2백원이2백20원이된것이다.

民願不正공무원 名單공개

내달부터 不當사례와함께 官報게재

정부는 民願처리와 관련, 不正을 저지른 공무원의 名單을 총무처가 매일발간하는 官報에게재, 공개할 방침이다. 총무처는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된 민원과 민원감사 결과및 민원모니터를통해 문제점을 추출 ▲복지·노동▲人權·치안▲교육·시험▲수도·전기▲건축·도시행정▲교통·통신▲보건·公害▲戶籍·兵籍▲재정·세무▲기타등 10개분야로나눠 민원처리 不當사례와 함께 民願非理관련공무원의 명단을 2월부터 官報에 게재키로했다.

총무처는 또 官報에 공표한 잘못처리된 중요 民願은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가능한 한 현지에 나가 공동으로 시정키로하고 매월말 기관별로 통계를내 기관장에게 통보키로했다.

총무처는 이와관련,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키위해 2월중 합동민원실무관으로 각부처 市·道의 민원책임자들 1백여명을 상대로 민원처리방법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萬3千여 政府機能 재정비!

정부는 지난해의 조직정비에 이어 1만3천여개의 정부機能을 재검토, 부적절한 기능을 제거하고 選別된기능을 합리적으로 再配分키위한 「정부機能分析작업계획」을 확정, 30일 각部處에 시달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계획에의하면 모든 기능에대한 분석을통해▲정부가 직접수행해야할 직접사무와 시험이나 조사, 연구등 민간부문에이양, 위탁할수있는 사무를 區分책정하고▲類似또는 重複된 기능이나 단순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형식적인 사무는 정부기능에서 제거하며▲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기능이나 對國民 서비스기능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계획은 또選別된 정부기능은 ▲部處상호간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간등 各級행정기관에 합리적으로 再配分,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이나 정책수립등전국적인 조정을 필요로하는사무를 취급케하고 部處상호간에 분산된기능은 통합하는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區分할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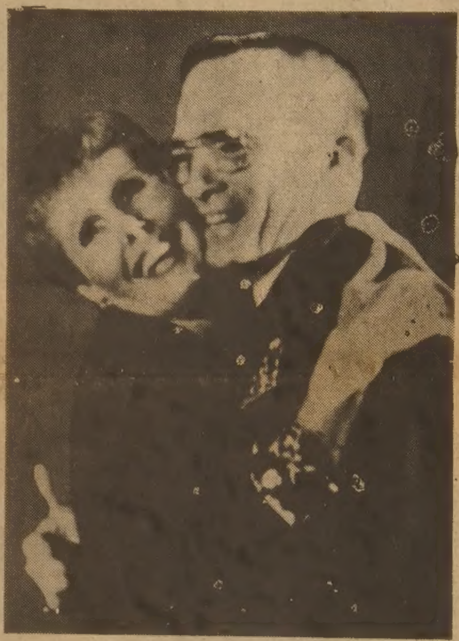
南北對話촉진 새提案

케야르 유엔事務總長 "곧 내겠다"

【東京3日=聯】페레스·케야르 신임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기위해 금명간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한반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共同통신이 30일 뉴욕발로 보도한바에의하면 케야르총장은 최근 全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고무적인 상황은 못된다고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유엔이 남북한에대해어떤 형태로든 현실적제안을할수있을지 검토중에있으며 가까운장래에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야르 신임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무총장교체를 계기로 유엔이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욕을보이고 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시사한것으로 주목을 끈다.



도지어夫婦 감격의날

도지어 美육군준장의부인 주디스·도지어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뒤늦게 크리스마스선물을 뜻밖에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 금목걸이 선물은 도지어장군이 납치되기전에 샀었던것인데 부인은 그것에 관해서 모르고있었다.
【비첸자 (이탈리아) 29日AP電송=聯合】

北傀 무더기 勳章판매作戰

조총련商工人 헌금줄자 당황

【東京30日=聯】재일조총련 동포들의 헌금이 격감하는데 당황하고있는 북괴는 최근조총련상공인들의 헌금을 독촉하기위한苦肉之策으로대량의 훈장살포작전을벌이고있다.

도쿄에서 발간되는 교포 일간지 통일일보가 30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북괴는 조총련 상공인의 헌금액에따라 애국상, 애국상금메달 및 애국상은메달등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選擧法 개정안등 民正에 검토촉구

柳民韓總裁

外務委 9일召集 文公委는 16일에

李民正總務밝혀

현행「刑法典」民主的으로改正

民正검토 用語·內容 일반인이 알기쉽게

民正黨은 우리나라 刑法典이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판단, 이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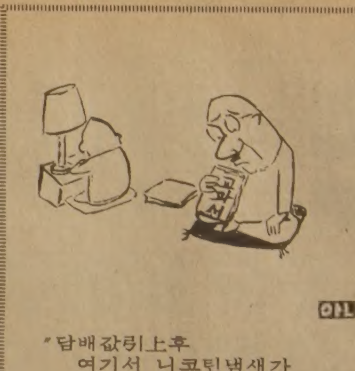
民正黨 정책연구소가 마련한 「현행刑法典에 대한 재검토와 그개정방안」에 의하면 지난53년 공포, 시행된 刑法典은 권위주의적인 舊日帝式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내용을▲민주적으로 하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것▲적용빈도가 높은 刑事特別法을 刑法本典에 편입시킬것▲고전적이고 어렵고 애매한 用語들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대치할것등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이방안은 刑法本典으로 편입시켜야할 특별법으로▲輕犯罪처벌법▲국가보안법▲反共法▲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회안전법등을 들고있다.

民正黨은 특히 경범죄처벌법은 발생빈도가 刑法各則의 범죄를 능가할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일본의 「輕犯罪法」을 그대로 모방한 日本式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범죄개념을 좀더 우리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으로 시정하고 刑法本典에 편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反共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 법인데도 特別法으로서 刑法本典과 유리되어 있는것은 모순이며 刑法各則에 국가의존립에 대한 罪로서 규정된「內亂의罪」「外患의罪」「國旗에관한罪」등은 현실적으로 死文에 가깝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존립에관한罪는 바로국가보안법, 反共法위반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社会漫評



"담배값引上후 여기서 니코틴냄새가 나는것 같기도 하고…."

地平線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偉大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B) 922-3111
R) 791-8196

MARVIN — STARR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카보로 지역의 마빈·스타 G.M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일하게됐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봉사코자 하오니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 의 문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PRIX, PARI SIENNE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LESABRE, ELECTRA, RIVIERA

〈각종 VAN트럭〉, 〈데모카〉, 〈USED CAR〉

※BEST SERVICE IN TORONTO
● 스카보로의 유일한 한국 세일즈맨
●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토론토지역 최저의 자동차 가격보장
● 항상 300~400대의 차를 보유

주소 :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조 의 문

아침에

人生을 긴 眼目으로 보자

不激·不躁·不競·不隨 여유 보여야

〈변호사·前弘大總長〉 李恒寧

한바탕 소용돌이가 휩쓸고난뒤에 勝敗의 판가름은 났다. 學力고사 점수다! 內申등급이다! 一流다! 二流다! 小心하다! 배짱이다! 등의 요란스러운 낱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사람은 운수좋게 지망한 大學에 입학이 되었고 어떤사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먼저 大學에入學한 학생들에게 祝賀의 뜻을보내고 떨어진 학생들에게 慰勞의 말을 전한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 갔다고해서 우쭐할것은 없다. 더군다나 배짱이나 요행으로 들어간 사람은 깊은 반성을 해야할것이다. 사람이 이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자기의 실력을 無視하고 行動하거나 또는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지 않고 쓸데없는 배짱이나 요행을 바라는것은 결코 좋은일이 아니다. 이번에 배짱과 요행으로 합격한 사람은 앞으로는 착실하게 正道를 택해서 人生을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 智慧를 마련하도록 발분을 해야한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않고 앞으로도 배짱과 요행으로 人生을 살아갈생각을 구한다면 그사람에게 대하여 이번의 大學合格은 커다란 불행이 될지도모른다.

또 제實力대로 들어간 사람도 이제는 좀더 차분하게 깊은 內省을 해볼때가 왔다. 고교시절에 入試준비에 쪼들리고 入學願書를 내고 그發表를 기다릴때 까지는 누구든지 들떠있어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世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學問이 필요한가? 나의 適性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각할 틈이 없이 덮어놓고 一流大學이라야 한다. 人氣學科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盲目的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홀가분한 기분으로 自己의 適性을 찾아보고 人類의 民族에게 무슨도움을 줄수있는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할 사람들은 바로 낙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망에 젖어서 자포자기하고 생각이고 무엇이고 다 귀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야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늘이 특별히 좋은기회를 주신것이라고 감사해야한다.

入試에 떨어졌다고 낙망하고 右往左往하는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人生은 길고 긴 路程이요, 大學入試는 그路程에있어서 하나의 조그마한 關門에 不過하다. 그 하나의 關門에서 좌절되었다고한다면 그사람은 긴 人生의 길목의 처음단계에서 이미 스스로 물러난 것과 다름없다. 한번 떨어졌다고해도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번에 떨어졌으면 다음機會를 기다리는 餘裕를 가져야할것이요, 결코 초조하게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실패가 앞으로의 더큰 성공을 준비해주는 것일수도 있다.

學力考査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사람도있을것이요,內申등급이 낮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것이요,學校를 잘못 선택하고 學科를 잘못 선택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런 사람은 學力考査점수가 높은 사람과 內申등급이 높은사람을 부러워할것이며 배짱좋은 사람과 요행수가 강한사람을 부러워할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은 모두 부질없는일이다. 그것보다는먼저 무엇이 자기의適性이며 무슨學問이 앞으로 필요한것인가하는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것이 급선무다.

떨어진 學生에게 묻노니 그대가 志望한 學科가 단연 그대의 適性이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는가? 남이人氣가 있다고해서 덮어놓고 志望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이 自己適性을 알아차리는것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다. 미국의 에머슨이란 철학자는 「大體의 人間은 죽을때까지 무엇이 自己의 適性인지를 모르고 지낸다」고 하였으며 오직 몇몇사람만이 일찌기 自己의 適性을 찾아내어 그방면에서 大成하였을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은 得意할때보다도 失意할때가 더욱 심각한 思考를하게 마련인데 이번에 합격된 사람은 그냥 기쁨에 넘쳐서 무슨 反省을 할겨를이없겠지만 이번에 실패한 사람은 그야말로 깊은思考를 할수있는 千載一遇의 좋은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깊은思考와 反省을통하여 어렴풋하나마 自己適性을 가려낸 사람은 自己適性에맞지않는 大學에 떨어진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을것이다. 만일에 이번에 떨어지지않고 그냥붙었더라면 자기의 적성에 맞지않은 大學을 억지로다니게될것이요 그것이 결코 즐거운일이 될수없을것이며 그러한 大學에 다녀서 무슨 소득이 있겠으며 그러한 大學을 나왔다해서 앞으로의 人生에 무슨 도움이될수있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면 떨어진것이 천만잘되었다고 생각될지모른다. 무엇이 自己의適性인가하는것을 냉정하게 따지는데는 지금이 바로좋은기회요 이번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그런기회가 별로없을지도 모른다.

깊이 생각해보아도 自己의 1차지망이 옳았다고 하면 다시 1년 공부해서 내년에 들어가면 될것이다. 人生은 길다. 70年이나 80年이나 90년, 1百年이나 되는 긴 人生속에서 大學에 1년쯤 늦게 들어갔다고해서 크게 마음쓸것은 없다.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가운데 처음 관문에서 실패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다. 가령 세계적인 彫刻家로 알려진 프랑스의 로댕같은 천재도 美術學校入試에 떨어진일이있고 物理學者인 아인슈타인도 大學入試에 떨어진 일이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作家가 처음 출판한 作品이 人氣가 없어 아무도 읽어주지 않은 일이 많았다. 순조롭게 처음에 뜻을 이루는 사람도 많지만 처음에 실패하고 그다음 發憤해서 더 큰 人物이 된 사람도 적지않다.

이번에 떨어진것은 내년에 더 좋은성적으로 들어가라는 하늘의 暗示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뜻을 이루지못하고 불우한때일수록 앞날의 希望을 가져야한다. 그 앞날을 생각한다면 금년에 요행으로 大學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떨어진것이 多幸일지도 모른다. 어떤 學生은 語學이 부족해서 떨어졌을것이요, 어떤 學生은 自然科目이 부족해서 떨어졌을것이요, 어떤 학생은 社會科目이 부족해서 떨어졌을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 1년동안에 그 不足한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야한다. 語學이 부족해가지고 大學에 들어가서 어떻게 外國의原書를 읽을수 있을것이며, 自然科目이 부족해가지고 大學에 들어가서 어떻게 科學的硏究를 할수 있을것이며, 사회과목이 부족해가지고 大學에 들어가서 어떻게 現實把握을 할 수 있을것인가? 基礎學力이 모자라면 大學에서 제대로 專攻科目의 공부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基礎學力이부족해가지고 今年에 入學하는것 보다는 基礎學力이 넉넉해가지고 내년에 入學하는것이 결과적으로 더빨리 成功을 거두게 되는지모른다.

이번에 떨어진 사람에게 또한가지 권고하고 싶은것이있다. 그것은 꼭大學에 가야만하는가 하는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바란다. 大學에 들어간다는것은 人生을 살아나가는데 다소의 도움은 되겠지마는 大學에가는것만이 人生의全部요 人生의 最終目標는 아니다.

大學에 다녔거나 아니다녔거나 그사람의 人生勝敗는 그가 죽고나서 얼마마한 업적을 국가와 인류에 남기고 가느냐에 달려있다. 大學을 나와서 博士까지 된사람도 크게 人類에게 도움을 주지못한 사람도있고 대학은 고사하고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人類에게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

미국의 大發明家인 에디슨은 正規敎育을 받지아니하였고 美國의 偉大한 大統領인 링컨도 獨學을 하였다. 作家나 藝術家가된 사람은 大學에서 中退한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꼭 大學에 가야만 성공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곰곰 自己의 素質을 생각해보면 구태여 大學에 가지 않더라도 自己가 開拓할 땅은 얼마든지 무진장하게 있을것이다. 오늘날 大學을 지망하는 사람은 무슨 커다란 뜻을 품었다기 보다는 大學이라는 간판에 더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有名無實한것을 숭상하는 얄팍한 세태탓이다. 대학을 나와서 쓸모있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것보다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일에 충실하며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일을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제 우리는 有名無實의 시대를 청산하고 오히려 無名有實의 시대로 들어가야한다. 허울좋은 大學이라는 간판으로 행세하는 時代는 오래지 않아 사라질것이요 아무 學閥이 없어도 實力만 있으면 尊敬을 받을날이 곧 다가올것이다. 우리나라가 一等國이 된다는 말은 大學을 나온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實力者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제 1차의 大學入試는 끝났지만 2차가 남아 있다. 1차에 떨어진 學生가운데에는 2차에 應試하는 사람도 있을것이요 또 조용하게 1년을 기다리는學生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人生을 긴眼目으로 보아서 合格不合格이라는 一時的 事件에 너무 神經을 쓸 필요는 없는것이다. 옛말에 急하게 굴지말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남하고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남에게 덮어놓고 따르지 말라 (不激·不躁·不競·不隨)는 四不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더 沈着하고 여유있게 人生을보자!

埃, 對蘇정상화 示唆

"蘇는 결국中東平和에 참여"

무바라크 會見

【카이로29日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29일 소련이 궁극적으로 中東평화정착과정에 참여하여 모종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이며 이집트·蘇관계도 다시 정상화될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권위있는 半官紙 알·아람紙는 이날 무바라크대통령이 서구및 미국방문길에 오르기전 이탈리아의 TV방송과 가진 회견을 통해 그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람紙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소련은 초강대국으로서 궁극적으로 中東평화과정에서 모종역할을 맡게될것이며 카이로와 모스크바간의 관계도 정상으로 복귀할시기가 올것으로 예견한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집트가 故안와르·사다트 대통령 체제하에서도 초강대국들과 보다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있음을 새로이 시사한것이다.

터키領事 살해용의자逮捕

아르메니아出身 10代…1명은手配

【로스앤젤레스29日UPI·聯合】로스앤젤레스주재 터키총영사 케말·아리칸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경찰은 아르메니아출신의 해리·사수니안(19)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하는 한편 또한명의용의자를수배했다고29일밝혔다.

로스앤젤레스경찰은 사수니안이 로스앤젤레스교외 패사디나의 자택에서 28일밤검거됐으며 그의집에 함께사는 청년2명과 여자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청년2명은 석방됐으나 여자1명은 계속조사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란·이라크 和解조짐

바그다드 非同盟회담 초청 이라크

7천여捕虜 가족面會 許容 이란

【싱가포르29日AP AFP=聯合】이라크는 오는9월 바그다드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非同盟頂上회담에 이란을 초청했다고 타하·무히딘·마루프 이라크부통령이 29일 말했다.

마루프부통령은 이날 3일간의 싱가포르 공식방문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같이 밝히고 또 이라크는 이라크·이란戰이 9월의 非同盟頂上회담 개최 이전에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루프부통령은 그러나 만일 이라크·이란戰이 계속된다해도 非同盟頂上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루프부통령은 또 이란이 이라크의 회담초청을 수락했느냐는 질문에대해『우리는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못하고있다』고 답변했다.

마루프부통령은 특히 이라크·이란戰에 언급하여 이라크는 평화적 전쟁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전쟁을 종식할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가 유엔을 비롯하여 非同盟운동, 회교회의등의 모든 평화제의에 응했으나 이란이 이같은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니코시아(키프로스)29日AP=聯合】이란은 이라크 정부가 이란전쟁포로에 대한 가족방문허용을 제의한데뒤이어 7천여명의 이라크 전쟁포로들을 위한 가족방문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란관영『이슬람공화국』통신(前파르스통신)은 이라크가 그같은 제의를 실천에 옮길경우 2백명에서 2백20명에 이르는 이라크 전쟁포로 가족들이 오는2월1일부터 매주 이란을 방문하게 될

波 가톨릭指導部에 內紛

强硬·穩健양측 對政府입장싸고

【빈29日AFP=聯合】폴란드가톨릭지도부는 對정부입장을 둘러싸고 강·온파간의 내분을 [illegible] 보이고 있다고 폴란드국회의원 리자르드·보즈냐크 29일 [illegible]

폴란드공산당중앙위원이었으며 對西方언론관계 전문가인 보즈냐크는 이날 한 기자회견에서『일부 폴란드가톨릭주교들이 철저한 反共主義자들[illegible] 요제프·글렘프 대주교는 현재의 사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教皇과 現事態논의

【바르샤바29日聯合】요제프·글렘프 폴란드 대주교는 오는2월4일 폴란드 계엄령선포후 처음으로 로마교황청을 방문, 교황 요한·바오로2세와 회담한다고 바르샤바교회소식통들이 29일밝혔다.

美國人 테러위협 도지어救出 보복

【워싱턴29日UPI=聯合】제임즈·도지어장군 구출로 일대타격을받은 이탈리아의『붉은旅團』은 이의 보복을위해 앞으로 미국인들에 대한 파상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美국무성의 한테러문제담당 고위관리가 경고했다.

프랭크·페레즈국무성테러문제담당관은 이날 미국NBC의 투데이프로에 출연, 그와같이 경고하고「붉은여단」이 도지어장군을 납치한것은 이미 이들이 미국인들을 겨냥,도전을 걸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6월 歐洲순방 레이건, 佛·伊등

【워싱턴29日AP·AFP=聯合】레이건 미 대통령은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西方선진공업국 경제정상회담과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에 참석, 유럽지도자들과 광범위한 회담을 갖는한편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와도 만나기위해 취임후처음으로 오는6월 유럽방문길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29일 발표했다.

메아리

담배 값

1년만에 담배값이 올랐다. 이번 인상은 교육세 신설때 이미 예고 되었다. 그렇지만 막상 값오른 담배를 입에 무는 애연가의 입맛은 씁쓸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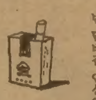
「피울것이냐, 끊을것이냐」이런 독백을 애연가라면 한번쯤 해 봤직하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트웨인은「금연의 고통」을 익살스럽게 말했다.「담배를 끊는다는것은 아주 쉽다. 나는 천번이나 끊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愛煙國」은 알고보면 놀랍다. 전매청이 조사한 작년 담배소비량은 7백31억1천2백만개비에 달했다. 80년보다 4·8%가 늘었다. 이것을 한줄로 이어 놓는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여덟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와 맞먹는다고 한다.

담배 유해론이 쉴새없이 귓전을 때리는데도 애연가의 무감각은 여전한 셈이다.「흡연이냐, 건강이냐」는 절박한 구호를 내세우고 WHO가 지난 80년 범세계적 금연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흡연인구는 오히려 늘어만 갔다.

증가하는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그 기호가 고급으로 쏠리더니 작년엔 크게 달라졌다. 솔·거북선등 고급담배 소비가 80년의 증가율 13·9%에서 4·4%로 떨어졌다. 은하수·한산도등 중급담배도 4%로 증가율이 둔해졌다.

반면에 2백원짜리 값싼 담배는 작년소비량이 44·5%로 크게 증가했다. 애연가들의「절약심」을 읽을수 있을것 같다.



고급담배를 멀리하려는 현상을 생각하면서 이번 담배값 인상에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다. 10% 일률 인상인줄 알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10~16·7%선이 되었다. 3백원하던 담배는 20원을 더 얹어 올렸다.「20원의차액」이 교육세로 흡수되는지 전매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도 알수 없다.

이번 담배값 인상은 담배값 자체의 오름이 아닌 교육세 부담으로 그「引上苦」를 덜리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名分에 얹혀 약속보다 더 올린다는 것은 편승過多인상이라는 느낌을 짙게 해준다.

신종담배를 만들어 슬그머니 값을 올리는 폐단은 없어졌으나「편승인상」이라는 불평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옹하는 印-파키스탄 外相 印度를 방문한 아가·샤히 파키스탄外相㊧이 29일 뉴델리공항에서 영접나온 나라심하·라오印度외상과 포옹하고있다. 【뉴델리29日AP電送=聯合】

希, PLO 공식承認

"外交官12명 常駐도 허용 계획"

EEC會員國으로 처음

【아테네29日AFP=聯合】그리스는 28일 10개국歐共市(EEC) 회원국으로서는·최초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외교적으로 공식승인했다.

이날 샤우키·아르말리 PLO대표는 이오아니스·하랄람보풀로스 그리스외상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그리스는 이스라엘과 같은 총12명의 PLO외교관상주를 허용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관측통들은 안드레아스·파판드루수상이 이끄는 그리스社會黨정부가 다른 EEC회원국에의한 PLO승인도 모색하고있다고 전했다.

파판드루수상은 지난81년10월 당선이래 강력한 親아랍정책을 취해왔으며 아랍과 유럽국가간의 중재역을 모색하고있다.

그리스는 지난12월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이 아테네를 방문했을때 PLO승인 결정을 발표했었다.

파판드루수상은 키프로스문제를 둘러싼 터키와의 분쟁과 관련, 아랍국가들의 지원을 모색하고있다.

西方분석가들 언급

수슬로프死亡…강력한 支援者 잃어

브레즈네프地位 弱化예상

【모스크바29日UPI=聯合】소련공산당서기장겸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공산당 최고이론가 미하일·수슬로프의사망으로강력한한사람의 지지자를 잃었으며이로인해 앞으로 정치국에서의 브레즈네프의 지위도 약화될지 모른다고 서방분석가들이 29일 말했다.

韓國統一헌법 제의 BBC서 해설

【제네바29日聯合】영국BBC방송은 지난27일 하오4시45분부터 다음날 상오9시15분까지 6차례에걸쳐 全斗煥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에 대한 해설을 방송했다.

BBC방송은『오늘의 세계』라는 프로에서 6명의 아시아문제전문가를 전화로 연결, 全대통령의 통일방안에 관한 자유로운 토의를 전개하도록 했으며 이 전문가들은『全대통령의 제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같은 제안을 통해 全대통령은 全민족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고 논평했다.

붉은旅團 용의자

伊警, 23명 체포

【베네치아(이탈리아)29日UPI=聯合】이탈리아경찰은『붉은여단』에 납치됐던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을 극적으로 구출한지 하룻만인 29일 베네치아와 베로나지역의 붉은여단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붉은여단』의 은신처 8개소를 적발하고『붉은여단』용의자 23명을

海外토픽

女性애주가 癌위험

★보스턴大 연구팀서 발표

술을 즐기는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보다도 유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1.5내지 2배 더높은 것같다고 보스턴 대학의 의료 연구진이 30일 밝혔다.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팀이 영국 의학지 란세스에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주술을 즐기는 사람이나 음주를포기한 사람들보다도 유암에걸릴 위험이 더욱높다는 것이다.

보스턴대학의료연구지는 4년동안 미국 캐나다및 이스라엘등 3개국의 여성4천3백73명을 상대로 음주와 유암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결과 유암에걸린 여성가운데 맥주 포도주 혹은 기타 술을 즐기는 유암환자가 유암에 걸린 금주여성보다도 1.4~1.9배 더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뉴욕=AP】

알랭들롱·브론슨등

★가장섹시한 10걸로選出

프랑스의 미남배우 알랭들롱과 실베스터·스텔론, 日本의 도시로·미후네, 찰즈·브론슨등이 세계에서『가장섹시한 남자배우10걸』에 선정되었다고 최근 폐막된 마닐라영화제당국이 발표. 이들이 지닌 매력을 훑어보면—.

▲찰즈·브론슨=세계에서 가장 험상궂은 사나이지만 나름대로 감수성은 있다.

▲알랭들롱=우울하면서도 매끄럽게 세련된 프랑스판 케리·그란트

▲마르첼로·마스트로아니=섹스·어필의대명사이탈리아적 성적매력의 집약판.

▲도시로·미후네=눈빛이 너무 강렬해 똑바로 들여다볼수 없을정도. 한번 눈길이 마주치면 벗어날수없다.

▲실베스터·스텔론=완벽한 육체의 표본. 그의 육체는 특이한 아름다움을 느끼게한다. 【마닐라=UPI】

새中高농구聯 발족

중고 농구연맹은 30일 이사총회를 열고 金桂東회장을 유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집행부▲회장=金桂東(한국화장품 상무)▲부회장=宋樺 朴漢永 李勝法▲전무=尹錫午▲총무=金學英▲재무=朴相浩▲기획=韓春澤▲심판=金鍾和▲경기=李章鎬▲섭외=金鑽洙▲이사=鄭永浩 梁源榮 趙鉉求 韓相鉉 崔洙天 鄭秀雄 金永來▲감사=柳時斗 于鍾河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런던지역 지국장입니다

강 상 권: ☎ 432-5931(B)
681-6925(R)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성균관대학교정기총회

새해및 구정을 맞이하여 늦게나마 동창제위께 인사를 올립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왔던 성균모임을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일 시: 2월13일(토)오후6시
장 소: 클링톤하우스 2층(BLOOR ST. W.)
(아리랑 하우스 앞)
회 비: $20
연락처: 김영창(884-0284), 김춘탁(534-1085),
이인덕(535-7772)

성균관대학교동창회장 : 김영태

토론토시

1982부동산세 —

중간청구

도시법및 82년 1월15일 채택된 시조례 73-82에 의거, 82년 재산세의 첫 4회분 지불 마감일자는 다음과 같다.

모든 와드 —

1회	2회	3회	4회
2월15일	3월15일	4월15일	5월17일

이상 불입은 작년세율의 절반을 기준, 부과된다. 나머지 절반은 금년 중반기에 부과, 4번 불입이 가능하다.

모든 중간 계산청구서가 발송되었다. 세금 고지서를 못 받은분은 시청세금정보 카운터 또는 전화 367-7115로 즉시 신청 해야한다.

세금지불 —

세금은 청구서와 동봉된 책자에 규정된 지점에 지불될 수 있다.

W. A. WILFORD
시청재무관

65歲이상老人 市內버스 "無賃"

來 10일부터 실시… 대중交通 개선방안

택시LPG化·運轉士 5월부터 月給制

학생 割引폐지… 通學券制

産業體 청소년은 通勤券

限時택시는 2년內「개인」轉換

택시·市內버스料金 인상 안해

산업체근로청소년들을 상대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시내버스 정기통근권제가 곧실시되며 65세이상노인들에게는 오는 2월10일부터 시내버스에한해 무임승차혜택이 주어진다。또 지금까지 학생、군인등에게 혜택을 주었던 시내버스요금할인제가 오는4월부터 전면폐지되고 대신 학생들에게는 정기통학권제가 실시된다。이와함께 한시택시를 2년이내에 모두 개인택시로 전환시키고 택시연료를 전면LPG화시키며 택시운전사의 고정월급제도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학생과군인의 할인요금제가 없어짐에따라 사실상요금인상효과가 난것으로보아 택시연료의 LPG화로 경상비를 줄여 올해에는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을 일체인상치 않을 방침이다。

교통부와 民正黨은 30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대중교통수단 종합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발표된 대중교통수단 종합개선방안의 구체적내용은 다음과같다。

시내버스요금 할인제 폐지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생등에게 30%의 요금 할인혜택을 주던것을 전면 폐지한다。또 중사이하의 군인·비간부경찰관들에게 주던 50% 할인 요금도 폐지한다。그러나 1·2급원호대상자와 분서연령범에 한해서는 계속 할인요금을 적용시킨다。또면내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대신 이같은 할인요금 폐지로 운수업체에 사실상 요금인상의 효과를줘 적자폭을 보충해준다。

정기승차권제

앞으로중고생등의머리및교복자유화조치에따라 더욱 잦아질 요금시비로인한 승·하차난을 사전에 막기위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정기통학 권제를 4월부터 실시한다。

또 학생연령층에 해당되는 전국1백여만명의 산업체근로청소년들에게도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정기통근권제를 확대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곧 결정한다。

정기승차권제는 통학 통근거리에 운행되는 모든버스에 대해 허용하며 공휴일에도이용할수있다。

요금은 한달간의 왕복요금을기준으로 1~6개월기간으로하되 기간에따라 약간의 할인요금을결정、적용시켰다。

정기승차권발행은 버스노선공동관리위원회、조합、각학교등에서 발행하며 수입은 회사끼리 배분한다。

토큰제는 현행대로 병행되며 토큰판매소를 대폭늘린다。

노인무임승차제

65세이상노인에게 2월10일부터 시내버스 50%할인혜택을 주기로했던 보사부방침을 전면개편、무료혜택을준다。

한시택시폐지

오는89년까지 시효만료되는 전국1만3천여대의 한시택시를 2년이내에 개인택시면허로 전환시키거나 전전택시회사에 흡수시킨다。

이같은 조치는 한시택시의 운행질서문란을 없애고 영세차주들의 생업을 보장하기위한것으로 차주가 직접운전하는경우는 개인택시면허로 전환시키고 운전사고용 차주는 우수택시회사에 팔거나 개인면허자격자에게팔도록한다。

LPG택시확대

현재 6만5천대의 택시중 37%를 차지하고있는 LPG택시의 비율을 높여 전면 LPG택시화한다。

LPG택시의 경우 하루연료비가 7천원~1만원씩 절약할수 있어 택시요금의 인상요인을 보충해주고 공해방지 효과도 거둘수 있다。또 통금해제조치이후 하루 6~7천원의 수입금이 줄어든것을 메우고 운전사들의 수입금을 줄이기위한 무리한운행을 해소할수있다。

고정월급제

전국택시운전사들의 고정월급제는오는5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한다。임금수준은 15~20만원의 기본금에 성과금을 합산한 액수로한다。현재 아리랑택시의 경우 고정급외에 초과수입금을 누계로 한달간 합산해 지급하고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市內버스

"前期大 査定내용 大學서 公開하라"

학교등에 抗議

일부 신문에 서울大、延世大、高麗大、西江大등 전기주요대학의 합격자 성적분포가 보도되자 이들학교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문교부에 몰려가 입시사정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때 농성을 벌였으며 신문사에도 문의전화가 오기도 했다。

30일상오 문교부에는 1백여명의 학부모가 몰려와『延世大등 주요대학의 합격자성적분포를 밝히라』고 요구、농성을 벌였다。

또 이날 서울대학교무과에는 1백50여명의 수험생과학부모가 소동을 벌였는데 이들은 한결같이『점수분포표와 커트라인을 공개해서 불합격된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明知여고 졸업생 李敎修양(19)은『학력고사성적 2백61점에 내신3등급、출석성적 1등급을 받아 사대국민윤리과에 지망했는데 나보다 점수가 훨씬 낮은 2백35점짜리가 합격했다는데 어떻게된 일인가』고 울면서 항의했다。

또 鄭泰敎씨(50·공무원)는 장녀가 학력고사에서 2백28점을 받아 의대 간호학과를 지원낙방했는데 2백점짜리가 3명이나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딸이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된다』며『사정기준을 밝히라』고 요구、교직원들과 멱살까지 잡는 시비를 벌였다。

이같은 주장에대해 학교측은『사정작업은 직원들이 손으로 계산한뒤 컴퓨터로 대조、전혀 하자가 있을수 없다』고 밝히고『보도된 내용이 부정확할뿐 아니라 면접등도 고려했으니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계산해보라』고 설득했다。

또 高麗大에도 부산·大田등지에서 상경한 학부모등이 교무과로 몰려와 입시사정원칙을 밝히라고 항의했다。

이날 법학과를 지원했던 金國鎭군(18·경북安東경안고졸신)은『내신 1등급에 학력고사 2백68점을 받았으나 3지망까지도 불합격됐다』며 사정원칙을 학교직원에게 따졌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문교부지시에따라 사정원칙이나 합격선은 공개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스포츠話題

"서울올림픽 物心으로 지원"

運動具메이커 아디다스社長 밝혀

國産品質높히게 技術도 제휴

스포츠용구의 세계적인 메이커인 아디다스의 홀스트·다슬러사장은 30일 세라톤·워커힐서 기자회견을 갖고 88년 서울올림픽에 기술적인 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않겠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이 10억달러에 이르는 아디다스는 몬트리올과 모스크바 올림픽서 각국 참가선수들의 유니폼과 신발등을 80%나무료로 공급했는데、다슬러사장은 서울올림픽서도 이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슬러씨는 이어 올림픽을 상대로해서 벌어놓은후 올림픽에대한 의무감 때문에 지원을 하고있다고 말하고『한국내 스포츠용구 제조회사와도 기술제휴를하여 서울올림픽때까지는 한국의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이 되도록 기술원조를 아끼지않겠다』고 말했다。

다슬러씨는 2차대전후 아마와 프로의 개념이 모호해져가고 있다고 말하고、순수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각국이올림픽에 대비해 풀타임연습을 시키고있다。IOC에서도 아마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26조를 개정할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올림픽 전까지는 아마자격을 각국가별 올림픽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취할것으로 본다』고 내다보았다。

다슬러씨는 작년 西獨바덴바덴 IOC총회서 88년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하는데 막후에서 상당한 지원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소련은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한데대해 불만이 많았다。동구권서는 스테이트·아마추어리즘이 절정에 이르고있어 동구권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는 꼭 참가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炳】

◇다슬러社長

84년 LA올림픽때 레이건 開會式참석

【워싱턴29日UPI=聯】레이건美國 대통령은 29일 오는84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개회식에참석할것을수락했다고백악관관리들이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환·안토니오·사마란치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피터·유버로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개회식참석초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이관리들은 전했다。

한편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蘇聯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참가거부설에 대해『작년 9월의 바덴바덴IOC총회때 모든국가의 올림픽위원회들이 참가를 확인했다』면서 그같은 보도를 부인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대비한 보안문제는 조금도 우려할바 없다고 덧붙였다。

蘇살니코프 우승 自由型 千5백m

【아메로스푸르트(네덜란드)29日AP=聯】남자자유형1천5백m세계최고기록 보유자 블라디미르·살니코프(소련)는 네덜란드의 아메로스푸르트에서 열린 19개국초청국제수영대회첫날 1천5백m에서 15분31초13을 기록、자신의 세계최고기록 14분58초27에 32초86이 뒤지는 기록으로 우승했다。蘇聯의 알렉산드르·차예프가 15분45초84를 마크、2위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알레한드로·메코트는 15분48초52의 기록으로 3위를했다。

流星의 賦 <297>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雅와 策謀 ㉘

이 사실은 곧 수길이 아는 바가 되었다。수길은 5인의 힐문사(詰問使)를 보냈다。히데쓰구는 그들을 인견하고

『모반이란 풍설이다。단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서 수교했다。백은을 조정에 진상한지 이틀후의 일이다。

5인의 힐문사는 후시미로 돌아갔다。그리고 3일후 수길은 다시 다른 사자(使者)를 보냈다。옛날 히데쓰구를 모시고 있던 나까무라(中村)、호리오(堀尾)、야마노우찌(山內)등 숙자(宿者)들이었다。그들이 히데쓰구에게 전한 바는 것은

『태합과의 사이에 불미한 풍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서로 만나 직담(直談)할 기회가 없었던 탓으로 압니다。후시미로나서서 태합과 직담하도록 하옵소서』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죽음의 사자(使者)라고 히데쓰구는 직감하고 승낙하지 않았다。사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후시미로 가셔야 합니다』

『안가겠다』

하는 응수가 되풀이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후시미로부터 고오조오슈(孝藏主)란 니승(尼僧)이 와서 내알(內謁)을 신청했다。이니승은 수길의 정처를모시는 필두여관(筆頭女官)으로서 히데쓰구가 소년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사이였다。

별실에서 히데쓰구와 대좌한 니승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곤 말을 이었다。

『태합님께옵선 퍽 기분이 좋으십니다。추호도 전하를 의심하지 않고 있읍니다。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이까。만일 전하께서 가시지 않으면 그때야 말로 화를 내실겁니다。가셔서 앞으로 있을 일을 충분히 의논하소서。전하께서 태합님을 뵙지않은지도 퍽 오래되셨죠? 어른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옵니다。제 말을 믿으시오소서』

히데쓰구는 숙로들을 경계했지만 이 니승은 믿었다。수길의 계략은 맞아 떨어졌다。죽음의사자는 이 니승이었던 것이다。

『그럼 가자』고 히데쓰구는 준비를 서둘렀다。구마가이를 비롯한 측근들이 제지할 여유도 없었다。히데쓰구는 니승과 더불어 문을 나섰다。수길에게선 손자뻘이 되는 3인의 어린 아이를 가마에 태워 선두에 보내고 백명 남짓한 수원만을 데리고 갔다。취락제를 나온 것은 정오 조금 지나서였다。다께다가이도(竹田街道)로해서후시미에 도착한것은 오후3시。

후시미성 가까이에 이르자 가재도구를 챙겨들고 도망하는등 주민들이 소동을 하고 있었다。히데쓰구가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쳐들어 와서 후시미가 전쟁터가 될 것이란 유언(流言)이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히데쓰구는 뜻밖이었다。

(내가 모반을 할것이라고?)

히데쓰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을 한것은 사실이고、수길이 군대를 몰고오면 그냥 죽느니보다 대항하다가 죽는편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혹시 그때 승기(勝機)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도 이편에서 적극적으로 모반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

朴婉緒作 金光培畵

숨바꼭질 ⑪

『선생님이 저 사람들을보다 돈독이 덜 오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수지는 유원장에게 묘한친근감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하도 바보같아서。남들이 다뒤에서 손가락질하는것 같아。바보 바보하고。얼굴이 부끄러운게 아니라 뒤통수가 부끄러운 기분은 아주 고약 하구만』

『그게 꼭 땅을 싸게 팔아서일까요? 오누이의 집을 문 닫았기때문 일거예요』

수지는 유원장의 아픈곳을 어루만지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막상 그 일에서 손을 떼고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전하군。그렇지만 그 일로부터 손 떼는 일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데。어차피 그집은 문닫게 돼 있었어』

『알아요。전쟁고아와 연세로운 고아를 안받으신거。전 고아원을 여러군데 알고있는데 선생님처럼 고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게 보기좋은 분도 없었는데。저도 가끔 아이들하고 놀러보고싶었어요。아버지가 안계시던요。어머니도요。저도 전쟁고아예요』

수지가 씁쓸하게 말했다。

유원장은 말없이 엽차그릇을 만지작거렸다。그는 사모님이 변한 것처럼 외견상 변한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머리는 비듬이 낀 것처럼 윤기없이 희끗희끗했고 옷차림은 후줄근했고 얼굴의 주름살은 늙어서 생긴 것과 많이 웃어서 생긴 것이 반반씩인 것처럼 사람 좋은 인상이었다。수지가「오누이의 집」을 처음찾아왔을 때도 유원장은 그런 사람이었다。이발을 하거나 딴 옷으로 갈아입었다고해서 인상이 변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변한건없는데도 이건 유원장이아니다라고 소리라도 지르고싶은걸 수지는 가까스로 참아내고있었다。무엇인가 왕창 무너지고 변했다。무엇인가…。마치 가렵긴 가려운데 가려운데를 못찾을때같은 조바심으로 수지는입술을 깃씹었다。

『우리 나가자』

옆 테이블에 지적도를 휘벌려나 가득 펴놓고 눈을 휘번득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시작하자 유원장이 일어섰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하여튼 나가자구、나가서 걸으면서 이야기 하자구』

유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포장이 안된채 차들의왕래가 빈번한 한길을 피해 논두렁으로 접어 들었다。

『거의 일년만에 여기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버스종점이 들어와서 일까?』

『네、그렇지만 변한건 별로 없어요。버스종점 자리가 버스종점이 됐다는것 밖에 없는데도 이 들판이 온통 그전 들판이 아닌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뜻이지?』

『이렇게 이들판이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누워있지만 속셈은 예전들판의 속셈하고 전혀 다른것같아。서먹서먹했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까는 그게 막연했는데 지금은 좀더 분명해졌어요。들판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이를테면 이들판의 속셈은 이제 곡식이나 푸성귀를 기를속셈이 아니란 말예요。휘발유냄새를 맡고나서 땅이갑자기 속 다르고 겉 달라진거예요』

萬年 1등의 才媛 이榮光 꿈같아요

서울大 全體 수석졸업 徐庚喜양

◇미국에계신 홀어머니께 서울大 수석졸업의 기쁨을 전화로 알리고있는 徐양。

금년도 서울대학 전체수석의 영광을차지한 徐庚喜양(22·인문대영문학과·서울麻浦區西橋洞399의22)은『2학기 성적이나빠 수석졸업은 꿈도꾸지 않았다』면서 겸손해 했다。

오는 2월26일 졸업식장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게될 徐양은 4년간 4·3점 평점에 3·93점을 따냈다。

徐양은 서울 啓星여중、수도여사대 부고를 졸업한 재원。

15년전 전북全州에서 산부인과병원을 개업하다 돌아가신 아버지徐載均씨(당시 44세)와 어머니 金英順씨(56)와의 사이에 2남5녀중 여섯째딸로、딸로서는 막내。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편모슬하에서『서로사랑하며 함께살자』는 가훈으로 평범히、그러나 근면하게 면학해온 徐양은 중·고교를 거치는동안 줄곧 전교 1등을 차지해 왔다。

특히 7남매중 언니2명이 서울大를 졸업했고 동생昌錫군(20)도 서울大 의대에 재학중인 수재집안。게다가 언니 銀喜양(24)도 이번에 서울大의대를 졸업할 예정이어서 경사가 겹친셈이다。

줄곧장학금을받아온徐양은아침9시에집을 출발、학교도서관에서 저녁8시에야 돌아오는 평범한 여학생。그래서 본인도 성적이나 재질에 특징이없다고 말했다。

◇酷寒주춤…어깨펴고

추위탓인지 움츠린자세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그러나 기승을 부리던 늦추위도 일요일부터 풀려 최고기온이 영상을 기록할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다。【서울光化門버스정류소에서】

高速버스 펑크墜落 셋숨져

京釜고속도 金陵부근서 논바닥벌렁 40여명 다쳐

緊急구조…死亡者 늘어날듯

蔚山行 한일高速

【金陵=聯】30일하오3시45분께 경북金陵郡牙浦面鳳山2洞 서울기점2백46.6㎞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蔚山으로 가던 한일고속소속 경기6바2056호 고속버스가 바른쪽앞바퀴가 터지면서 높이4m의 도로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사고로 차체가 뒤집히면서 최정애양(25·경기富川市驛谷洞 운암아파트 18동203호)등 승객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긴급출동한 고속순찰차량과 다른 차편으로 인근 龜尾市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사고버스는 이날 낮12시30분 승객45명(안내양·운전사포함)을 태우고 서울을떠나 사고지점을 1백㎞의 과속으로 달리다 앞바퀴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차체가 논바닥으로 굴러 뒤집혔다。

경찰은 중상자가많아 사망자가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

京水산업도 市外버스 나무받아 승객 15명重輕傷

【安養=聯】30일낮12시40분께 경기安養市石水洞380 경수산업도로에서 안양교통소속 서울5사6737호 시외버스(운전사 선일만·33)가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아 엄철기씨(77·서울麻浦區鹽里洞24의28)등승객15명이중경상을 입고 安養동신외과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이날 사고는 버스가 마주오던 택시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全國무대 韓牛절도 트럭動員 4명拘束

【水原=聯】경기화성경찰서는 30일 전국을 무대로 트럭을동원、19회에걸쳐 한우31마리를 훔쳐팔아온 일당5명중 4명을검거、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手術늑장…숨졌다"

患者가족 白病院 윗과醫·레지던트告訴

서울中部경찰서는 30일 서울中區苧洞 백병원 윗과의사 張錫孝씨(41)와 레지던트 沈明錫씨(29)가 치료를 늦게해 환자가 숨졌다는 가족들의 고소에 따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수사중이다。

張씨등은 지난달15일 하오 서울鍾路區貫鐵洞3·1빌딩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金東準씨(41·仁川市南區關石洞송림아파트)가 지난2일 숨지자、金씨의 가족들은『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않아 숨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開放대학이 생긴다

學費저렴·연수無制限 학점卒業制

文敎部 내달부터 京畿工專에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입학할수있고 몇년이고 학점만 따면 졸업이되는 개방대학(開放大學)이 오는3월 문을연다。

문교부는 30일 평생교육기관의하나로 개방대학을 설치한다고 발표하고 우선 京畿工專에「京畿工業개방대학」(가칭)을 신설、전문과정과 학위과정을 시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과정은 고교졸업자로 1년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자、학위과정은 전문대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1년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자에게 각각입학자격이 주어진다。

학비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비해 훨씬 싸게할 방침이고 과정별 교과과목은 종합학습프로그램을 개발、출석일수를 대폭줄이고 수업시간대를 다양하게해 근로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석할수있도록 할방침이다。

교수진도 현지교수를 배제하고 전문기술자약1백명을 확보、교육과정전반에 걸쳐 산학협동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업연한은 소정학점취득때까지 무제한이며 전문과정이수자(70학점이상)에겐 전문대학학력이 인정되고、학위과정이수자(1백40학점이상)에겐 학사학위가 주어진다。

蘇、LA올림픽 不參시사

멕시코방문 蘇體育相 "選手신변보장 우려"

【멕시코시티28日AP=聯】소련은 선수들에대한 신변보호문제때문에 오는84년의 美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멕시코관영 노티멕스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친선경기를위해 소련선수단을 이끌고 멕시코를 방문했던 소련체육상 세르게이·파블로비치가 선수들에대한 신변보장이 없기때문에 소련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하지않기로 했다면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측이 선수보호대책을 세울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에서 노티멕스통신과함께 파블로비치를 회견한 엑셀시오르紙의 한 기자는 노티멕스통신의 보도가 과장된것 같다면서 파블로비치는 선수들의 신변보호대책이 없을경우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지적、소련의 불참가능성만을 비쳤을뿐 단정적으로 불참의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노티멕스통신의 보도에언급、조직위가 소련으로부터 그같은 사실을 공식 통고받은바 없기때문에 아무런 논평도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신변보호문제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도파 보석부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外信部 金湧精 차장대우 李鍾九 기자
文化部 金周彦 기자
科學部 李光榮 차장대우
특파원 파리 金聖佑 뉴욕 金泰雄 東京 宋孝彬
LA支社 鄭逸和 기자 朴世勳 기자

秒當 50명이 죽어가는 人類의 難敵 征服의지혜

癌은 낫는 病이다

遺傳工學발달로 原因·正體 곧밝혀져
30年代 20%治癒서 지금은 50%까지
주위조직 번지기 전이면 百%完治도

현대인에게 암만큼 무서운 병도 없다。세계적으로 매해 8백7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이중 절반정도가 고귀한 생명을 앗기고 있다。매초 1백명의 암환자가 생겨 이중 절반인 50명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79년 한해동안 2억인구 가운데 80만명이 암에 걸려 이중 39만명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되어있다。이같은 암발생률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4명중 1명이 암에 걸려 이중 절반정도가 사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우리나라는 전국규모의 암환자 통계가 없어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같은 선진국의 추세로보아 줄잡아 매년 8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이중 절반정도인 4만명이 목숨을 앗기고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추계이다。매 2·2초 마다 한사람 꼴로 암희생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엄청난 희생인 것이다。현대인의 최대 難敵—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것일까。현대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할 최신 암정보를 총점검해 본다。

인류최대의 敵— 암이 정복될 날도 이제 멀지않다。최근 생물학 특히 遺傳工學의 발달로 두터운 베일에 휘감겨있던 암의 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 가고있다。더우기 조기진단과 수술·방사선·화학·면역등 최신요법의 눈부신 발달은 암치료율을 하루하루 높여가고있다。뿐만아니라 최근 암자체를 예방할수 있는 길마저 열려 암정복에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있다。

〈정체〉 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암을 정복하는 지름길은 곧바로 그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다。세계가 암의 정체를 밝히기위해 많은 학자와 돈을 쏟아넣고있는것은 이때문。하지만 아직 암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못하고 있는실정。현재로선 암이 다만 일종의 세포의 병이란것이 밝혀져있다。

정상세포는 인간이 수천 수만년후쯤에나 이룩할지 모를 아주 잘짜여진 사회와 같아서 주어진 역할을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해나간다。암세포란 이같은 정상세포가 어떤원인으로 질서를 잃고 무법자가된상태。다시 말해서 암세포는 일종의 미친세포인것이다。이때문에 암세포는 무법자와 같이 주위의 정상세포를 제치고 무한정 커나간다。암세포는 또 혈액 또는 임파선을 타고 주위의 다른 조직으로 퍼져(轉移)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암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인자인 DNA(디옥시리보核酸)의 어느부분에 이상이 나타나 이같은 미친 암세포로 바뀌어 가는지 한창 연구중이다。이같은 암의 정체가 밝혀질때 인간은 유전공학의 힘을 빌어 뒤틀린 DNA의 유전정보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을 정복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원인〉 가만히 있는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지금까지 수많은 암학자들이 이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아왔다。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암의 원인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바이러스、호르몬、스트레스、면역、발암물질、노화、유전、자극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DNA에 이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것이다。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인들에게서 높은 암발생률을 보이고 있는것은 이때문이기도하다。

〈발생빈도〉 현재 세계의 암환자는 어림잡아 개발도상국에 5백40만명、선진국에 3백30만명등 도합 8백70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9년 한해동안 2억인구 가운데 80만명이 암에 걸려 이중 39만명이 생명을 앗긴것으로 나타나있다。69년의 암사망자는 31만명。11년만에 8만명이 불어난셈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간 암환자발생수는 자그마치 32만~34만명。이중 16만~17만명이 생명을 잃고있다。

이같은 암발생빈도로 따질때 4명중 1명이 일생을 살아가는동안 암에 걸리고있고 이의 절반이 결국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것。다시말해서 3가정 가운데 2가정이 가족중 암환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된다。

〈한국의 암〉 암은 나라와 민족、지역、환경에 따라 암종의 발생빈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폐암과 직장암、유방암등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선 위암과 자궁경부암、간암등이 단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한암협회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10대암을 보면 남자는①위암(전체의27·4%)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있고 다음이②간암(13·9%)③폐암(10·0%)④후두암(4·4%)⑤악성임파종(4·4%)⑥식도암(3·8%)⑦직장암(3·7%)⑧방광암(3·4%)⑨비강암(2·4%)⑩임파결절전이암(2·1%)의 순이다。

여자에서는①자궁암(46·2%)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다음이②유방암(12·5%)③위암(11·9%)④직장암(3·0%)⑤간암(3·0%)⑥갑상선암(2·5%)⑦폐암(2·1%)⑧악성임파종(1·6%)⑨난소암(1·5%)⑩비강암(0·9%)의 순이다。

한국원자력병원이 조사한 지난 10년간의 입원암환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에서는 위암과 간암이、여자는 위암과 폐암이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남자의 경우 위암은 72년 19·9%에서 80년 32·4%로 9년만에 무려 12·5%가、간암은 72년 8·3%에서 80년 16·4%로 8·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여자는 유방암이 11·5%에서 16·7%로、위암이 5·8%에서 13·3%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반해 여자의 자궁경부암은 58·3%에서 42·7%로 9년동안 15·6%나 줄었다。

〈높아진 치료율〉 암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치료율이 30년대 5분의 1이던것이 40년대 4분의 1、50년대 3분의 1을 거쳐 이제 2분의 1로 뛰어 오른 것이다。다시말해서 이젠 암에 걸려도 절반정도는 살아 남을수 있게된것이다。

실례를들어보자。암은 그病期에따라 0기에서 4기로 나누고있다。0기는 초기암、4기는 말기암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암가운데 단연 발생률1위를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의경우 치유율은 0기에서 1백%、1기 80%、2기 60%、3기20%、4기 5%에 이르고있다。치료술도 크게발전、지금까지 자궁전체를 모두 들어내던것을 0기인 초기암에선 자궁경을통해 이상부위를 지져버리는 국소요법만으로 1백%의 치료효과를얻어낼수 있게되었다。1、2기에서도 번잡스럽게 수술을하지않고 방사선요법만으로 수술요법과 맞먹는 치료율을 올리고있다。

위암은 잘낫지않는 암종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위암도 조기검진술의 발달에힘입어 최근 평균5년생존율이 부쩍높아졌다。조기위암의 경우 90%정도의 치유율을보이고있고 적절한화학과 면역요법을 하게되면 임파선과 위벽까지 퍼진(轉移) 1、2기의 위암도 40%정도의 치료율을나타낸다。

유방암은 초기의 경우 90%、주위조직으로 퍼진 경우에도 73%의 5년생존율을 나타낸다。피부암은 초기 1백%、주위 조직으로 퍼진 경우에도 75%의 치료율을 나타내고 허치킨스氏병으로 불리는 악성임파종은 80%、전립선암 65%、뼈(骨)암50%、방광암 70%、고환암 90%、결장암52%。윌름氏 종양이80%의 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백혈병도 어린이의 경우 55%、만성40%、성인 15%의 치료율을 보인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암이 치료되었는지를 판정하는데 「완치」란말대신「5년생존율」을 써왔다。암은 재발이 잘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5년을 무사히 잘 넘기느냐가 치료의 기준이 되어온 것이다。그러나 요즘은 암치료술의 발전에 힘입어 일부 암에서는 완치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최신요법〉 현재 널리 이용하고 있는 암치료법은 수술과방사선 화학 면역등 4가지。최근 특히 이중 방사선과 화학및 면역요법이 크게 발전、암치료율을 크게 올려 놓았다。

그러나 최신 암요법의 발전이라고하면 검진에서 수술과 방사선 화학 면역등 모든 분야의 암전문가가 협력해서 치료하는 多學요법(Multidisciplinary approach)의 발전이꼽힌다。

암은 일종의 전신질환이다。또암을 일으키는 요인(誘發因子)이 많고 종류도 가지가지이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하고있는 암종만도 2백50가지에 달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암이라 하지만 암종마다 성질이 각각이어서 치료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화학요법이란 특성이 다른 이들 암을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암치료술을 총동원、복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높아진 암치료율은 주로 이같은 화학요법덕분이다。

【李光榮 次長대우】

도움말 주신분
▲金東集박사(가톨릭의대내과)
▲金炳洙박사(연세암센터소장)
▲金鎭福박사(서울大의대·외과)
▲朴龍輝박사(가톨릭의대·방사선)
▲朴贊一박사(서울大의대·치료방사선)
▲尹鐸求박사(한국원자력병원장·병리)
▲李章圭박사(대한암협회이사장·내과)
▲林壽德박사(경희대의대·피부과)
〈가나다順〉

癌예방 12條

일본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암예방 12조」를 소개한다。일본인은 우리와 식생활등 생활환경과 체위등이 유사해 우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①편식하지말고 밸런스가 맞게 영양을 섭취 할것。
②같은음식을 반복치 말것。
③과식하지 말것。
④폭음하지 말것。
⑤담배는 적게 피울것。
⑥적량의 비타민 A·C·E와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먹을것。
⑦짜고 신것을 많이 먹지말것。뜨거운것 은 삼갈것。
⑧많이 탄 부분은 먹지말것。
⑨곰팡이가 생긴것은 먹지말것。
⑩과도하게 일광욕을 하지말것。
⑪약을 남용치 말것。
⑫몸을 깨끗이 유지할것。

◇싯가 1백30만달러짜리 최신예 암탐사기 CAT스캐너는 조종실에서 암이 깃들수있는 모든 부분의 사진을 순식간에 찍어낼수있다。【LA支社=朴世勳기자】

한국實情에맞는 治療法과 實態

早期發見여부에 死活달려
專門病院에 가서 症狀에 맞춘 療法받아야
항간의 "特效藥"믿고 誤用하면 混亂만더해

암을 치료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암을 하루라도빨리 찾아 내는 일이다。암세포가 주위조직으로까지 번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암을 찾아 내기만 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암치료술만으로도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암종이 처음 생겨난 일정부위에 머물러있는 상태(0~1기)에서 발견만 하면 몇몇 암을 제외하고는 80%정도의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수있다。

암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암을 치료할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암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않은 전신질환이다。암에대한 특별한 단일요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것도 이때문。

따라서 조기발견한 암은 서둘러 수술과 방사선、화학、면역등 가장 효과적인 종합요법을 받아야한다。이같은 종합요법은 암치료시설과 암전문의를 갖춘 전문병원에서만이 가능하다。

종종 암에잘듣는다고 하는 이른바 암특효약이 개발되었다 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마음을 들뜨게하는 일이 있다。그러나 이들 암약에 지나친기대를 갖는 일은 큰 잘못。실용화되지 않고 공인되지않은 이들특효약은 암치료에 혼란만을 가져다 줄수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암치료는 암을 될수록 일찍 찾아내 지체없이 암치료 시설을갖춘 전문병원에서 암전문의의 도움을받아 이미 확립된 수술과 방사선、화학、면역등의 복합요법을 받는 일이다。

세계公認 癌치료술

〈수술요법〉 대략 전체암의 3분의 2 정도가 수술요법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암、대장암、직장암、항문암、소장암、식도암、간암、췌장암、유방암、갑상선암、위액선암、난소암、고환암、신장암、윌름氏종양、지방육종、섬유육종、활액막종양、신경아세포종、흑색종、골육종、질암、음경암、임파절암、구순암、설암、후두암、구강암、초기자궁암등이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암의 수술결과는 조기발견에 달려 있다。암세포가 주위조직으로 번져가지 않은 상태일수록 치료율이 월등히 높아 진다。특히 0기의 암에서는 거의 1백%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암이 좀 자란것이라 해도 암세포가 처음 생겨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限局性 1기)이면 좋은 치료율을 보인다。암세포가 주위조직으로 번지게 되면 치료율은 뚝·떨어진다。

수술을한 제1기와 2기의 우리나라 주요암에 대한 5년생존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2기)

위암 92%(20%) 피부암 95%(49%) 자궁경부암 90%(45%) 유방암 85%(50%) 갑상선암 94%(82%) 윌름氏종양 80%、대장암 73%(40%) 후두암 75%(34%) 구강암 75%(30%)。

암수술은 외과의라 해서 누구나가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수술을 할때 자칫 잘못 암종을 마구 주무르게되면 암세포를 오히려 주위조직으로 전파시킬수 있기때문이다。미국과같은 나라에서 암을 수술하고 치료할수 있는 전문병원을 따로 정하고 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방사선요법〉 암치료에 수술요법 다음으로 꼽는것이 방사선요법。치료장치로 코발트 60조사장치、선형가속장치、중성자조사장치등이 있다。이중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것은 코발트60조사장치와 선형가속장치。

현재 방사선치료술은 이들 치료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환자의 정상세포엔 방사선 장해를 최대로 줄이면서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파괴할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방사선치료를 할수 있는 곳은 한국원자력병원、연세대암센터、서울대학병원、이대의대부속병원정도이다。

방사선치료에 잘듣는 암으론 피부암、입술암、혀암、후두암、자궁경부암、허치킨스氏병、악성임파종등이 꼽힌다。

피부암、입술암、후두암、자궁경부암등은 수술과 맞먹는 치료율을 보인다。즉 자궁경부암은 1기 90~1백%、2기 73~83%、3기 38~56%、4기 14%。초기의 피부와 입술암은 90~1백%。움직이는 앞쪽부위에 생긴 혀암은 80%、후두암 95~1백%의 치료율을 나타낸다。1、2、3기의 허치킨스氏병은 80%、1、2기의 악성임파종은 50%의 치료율을 보인다。따라서자궁경부암과 후두암은 번잡스러운 수술을 할필요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화학요법〉 지금까지 항암 작용이 있다고 확인된 물질만도 자그마치 32만5천종에 이른다。이중 사람의 몸에 직접 써본것이 3천여종。그러나 부작용이적고 효험이 좋은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60여종。우리나라에선 이중 40여가지가 주로 사용되고있다。

화학요법은 최근 10년간 많은 발전을 보아왔다。그러나 이중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약물의 병합요법(Combination Chemotherapy)。병합요법이란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여러 항암제를 여러가지 복합처방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약효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최근엔 암세포를 세균처럼 배양해서 암세포에 잘듣는 항암제를 찾아、투여할수있는길이 열려 화학요법에 큰 진전을 가져다 주고있다。이같은 방법을 택하면 특정 암세포에 가장 잘듣는 항암제를 골라 투여할수있을뿐 아니라 듣지 않는 항암제를 피함으로써 쓸데없는 부작용을 줄일수 있게된다。

이같은 화학요법의 발달에 힘입어 그대로 두면 1년밖에 살 수 없는 급성임파성백혈병을 최근엔 50%정도의 완치율을 볼 수 있게 됐다。

〈면역요법〉 암을 면역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는 이른바 암치료의 제4요법인 면역요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이룩되기는 최근의 일。

한마디로 면역요법으로 치료한다하나 그 방법은 ①능동 면역 ②수동 면역 ③非特異性면역요법등 크게 3가지로 나누고있다。

현재 널리사용하고있는 BCG、코리네박테륨 시파붐、연쇄상구균(비시바닐)、크레스틴、농축비타민A등은 모두 非特異性면역에 속한다。

암의 면역요법은 아직은 단독으론 사용할수없고 수술、방사선、화학요법과 병행、떨어진 암환자의 면역능력을높여 암치료를돕는 보조요법으로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어느땐가는 능동면역요법이 개발돼 궁극적으로 암을정복할수있을 것으로보고 세계가 한창연구중이다。

최근 개발된 인터페론도 일종의 비특이적인 암면역요법제。인터페론은 유방암·골육종·악성임파종·백혈병·다발성골수종등에 좋은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치료율이 다른 암치료방법의 수준을 넘지못하고 있는데다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있다。

구독신청은 533-2236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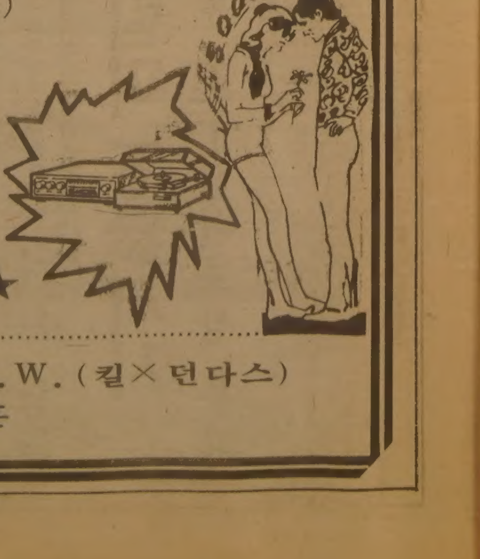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영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통닭. 오멩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장의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아십니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토요일도 광고 구독신청
10:00 a.m.-5:00 p.m.
☎ : 533-2361~4
현명한 광고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집
STEREO KING
● TELEFUNKEN (독일제품)
● SANSUI
● AIWA
● GRUNDIG (독일제품)
※비데오 취급합니다.
★ 교민께 특별봉사 ★
주소 : 2989 DUNDAS ST. W. (킬×던다스)
전화 : 766-4770 김봉훈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767−0762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SMALL DOWN PAYMENT)
☎: 1−514−637−6444

아이들(4살, 2살반) 보아주실분
연락바람(서부지역)
☎: 678−2651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자동차 메카닉 헬퍼구함.
중앙오토 써비스
☎: 532−3946

용모단정한 여자캐쉬어 구함.
(이스링톤 써브웨이근처 사시는분 환영)
☎782−2878(저녁시간 연락바람)

스토아 캐쉬어 구함.
(영 × 에그린톤)
☎251−7031(5시 이후 연락바람)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534−0563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 그로서리·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땅콩등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쉽게 번창할수 있는것임.
연매상 : $170,000
크 기 : 대강 1800 Sq.f.
아스킹 : $24,000 + 스탁
리 스 : 5년 + 옵션5년
☎: 425−1255

"집을 팝니다"
○ 4베드룸, 쎄미 디태취
○ First 몰개지 $31,000(Aug. 83)
○ 가격 $79,900
○ 미시사가 지역.
☎(B)752−6702, (R)275−1499(Mr. 박)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1−387−3983 권리금 $10,000

서 쪽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사고자 함.
파 실분 연락 바람.
☎ 749−9649 Mr. 엄

성업중인 가게급매
$65,000. (KEELE & SHEPPARD)
☎: 633−7222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783−0134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4500, 아스킹
$41,000, 렌트 $400, 리스 1+5(NO HEATING)
☎: 221−2084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284−4575(MR. LE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1−387−3983 권리금 $10,00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532−5394(B), 742−0737(R)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8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532−9139 (Mr. 로드리고)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8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3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741−7829(김조자)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Mr. LEE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248−5131

한 국 식 품
본 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 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 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합니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약 국

돈 밀 약 국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368−2746
조 남 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533−236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취싱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8656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PEOPLE'S
(냉동기 시설및 수리)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 221−5441	499−1203
미스타 이	미스타 원

자동차수리

라지에터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 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536−7875

꽃 집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B)769−0609 R)242−5194(어정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아 십 니 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8
50 BLOOR ST. W. ☎: 967−712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
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통응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옥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B)536−6854 (R)743−0752